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접수번호	4199990514632						
사업 분야	인문학	신청분야	동양언어와 문학	단위	전국	구분	교육연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중국어와 문학	중문학	일본어와 문학	일본문학		
	비중(%)	50%		50%			
교육연구 단명	국문)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중일교육연구단						
	영문) Chinese and Japanese Education Research Group: Nurturing Future-Oriented Human Resources to Lead the Trans-East Asia Age						
교육연구 단장	소 속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원)		중어중문학과(부)
	직 위		교수				
	성명	국문		전화			
				팩스			
				이동전화			
				E-mail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9~21.2)	2차년도 (21.3~22.2)				
	국고지원금	366,255	732,510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자체평가 대상기간		2020.9.1.-2021.8.31.(12개월)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9월 9 일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확인자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2021년 자체평가회의

2021. 9. 9.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중일교육연구단**

[목 차]

I.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2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3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5
①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5
② 교육연구단 비전 달성도	5

II. 교육역량 영역

1.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8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①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및 운영 실적	11
②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20
③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22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3
①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23
②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23
③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24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26
①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6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28
5.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29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30

III. 연구역량 영역

1.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33
-----------------------	----

2. 참여교수 연구역량	38
① 연구비 수주 실적	38
②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8
3.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43
① 연구 성과의 사회 이슈 연계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43
② 대내외 강연 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44
4. 참여교수 연구의 국제화 현황	46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46
②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48

IV.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1.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51
-------------------------------------	----

V. 회계 보고

1. 1차년도 국고지원금 집행 내역(2020년 9월 1일~2021년 2월 28일)	52
2. 2차년도 국고지원금 집행 내역(2021년 3월 1일~2021년 8월 31일)	53

[표 목 차]

<표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3
<표1-2>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3
<표1-3> 1, 2차년도 참여대학원생 현황	4
<표1-4> 박사학위논문 대표 사례	6
<표1-5> 석사학위논문 대표 사례	6
<표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23
<표2-2>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24
<표2-3> 참여대학원생 대표 연구실적	26
<표3-1>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38
<표3-2>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논문 실적	41
<표3-3>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저서 실적	42
<표3-4> 최근 1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47
<표3-5>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49
<표3-6> 최근 1년간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50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트랜스-동아시아 시대	트랜스 연구	통섭적 창의 인재
	4차 산업혁명	동아시아학	공존 · 공영
	트랜스 교육	지역 연대	지식공동체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본 교육연구단은 ‘트랜스-동아시아’를 교육·연구의 모델로 설정하고 최근 1년 간 한국 발 동아시아학의 정립과 발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다. 트랜스 교육·연구를 통해 통섭적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 간 교차 수강 및 공통 과목 확대, 문제해결 기반의 교과목(PBL) 신설 등 교육과정의 제도적 혁신을 달성하였다. 또한 Data Science · AI 관련 교육·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온라인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발 동아시아학 정립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연구 성과들은 지역·산업·사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각종 저술, 강연회, 온라인매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역량 영역 성과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한국적 시각과 국제화 시각의 심화, 광역화된 지역 융합연구의 시도,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의 연결 등을 목표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대학원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연구능력 향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전공영역을 전문화하면서도 학제 융합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을 단행하였다. 5개 전공체계를 기반으로 기초공동과목을 신설·지정했으며 개방형 과목을 운영하여 전공 틀에서 벗어난 학제 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전문가 이중 교육 트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곧 실시할 예정이며, 해외석학 및 전문가 초청강연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국제화·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인력들은 이러한 교육 성과들을 교내외 강연, 정부 등 외부자문,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각종 저술 활동 및 대중매체 강연 공유 등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역량은 우수한 석·박사 신입생 모집, 졸업자 배출, 진학 및 취업 지표로 이어지고 있으며, BK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역량 영역 성과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최근 1년간 논문 31건, 저서 8건에 달하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방법론, AI 콘텐츠의 활용과 응용학문 연구, 산학 협력 교육 방법론, 동아시아 언어문화 심화 연구 등 학술연구를 심화, 응용,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포함한다.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최근 1년간 총 74편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양적·질적으로 폭발적인 향상을 이루었다. 특히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업적이 창출되고 있으며, 개인별·LAB 간 경쟁 시스템, ‘우수성과’ 선정 등을 통해 이를 장려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참여교수들은 다양한 국제학술단체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술성과를 내는 등 확장적인 국제교류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또한 교육연구단 차원에서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연구 영역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달성 성과 요약	1. 교육역량: 교육 비전 및 교육 목표 달성 위한 인프라 구축 기초공동 과목과 개방형 과목의 신설·운영, 연구자·전문가 이중 교육 트랙 제도 확립 해외석학 및 국내외 전문가 초청강연회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국제화·전문화 교육 확대 강연, 자문, 산학 연계, 저술,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한 교육연구단 교육성과 확산 2. 연구역량: 어젠다에 부합하는 연구의 심화·응용·확산 환류 체계 구축 참여인력 연구 성과의 양적·질적 향상 달성.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국제공동연구, 국제학술활동, 석학교류 등 국제학술교류 모델의 지속적 확장		
미흡한 부분 / 문제점	현재 COVID-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제학술교류 영역에서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장·단기 연수 등 주요 활동과 프로그램이 잠정적으로 연기되는 등 교육연구단의 활동 가능 영역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다. 비록 비대면 해외석학·전문가 초청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 개최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국제 교류 기회를 개척하고 있으나,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성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확장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차년도 추진계획	- 우수 인재 확보: 석·박사 신입생, 신진연구인력 - 통섭 인재 양성: 제도적으로 확립된 연구자·전문가 이중 교육 트랙 제도의 실제 운용 - 연구역량 지속 강화: LAB 통한 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활성화 - 국제화 역량 강화: 다양한 국제학술교류 플랫폼 신규 개발 및 운용 - 지역·산업·사회 연계: 교육·연구 성과의 사회문제 연계 및 확산 노력 다변화		

I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명	한글	영문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원) 중어중문학과(부)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사업 선정 시 단장이었던 [] 교수가 2021년 2월 연구년으로 단장을 이임하게 되어 [] 교수로 교체되었다. 신임 단장인 [] 교수는 BK21사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교육역량

학부 교육에서 ‘중국고전시가’, ‘중국고전강독’, ‘인물로보는중국문화’ 등의 강의에 매진하여 본교에서 수여하는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학원 교육에서도 본인의 전공인 ‘중국시가연구’, ‘중국시론연구’, ‘전서연구’, ‘중국사문학연구’ 뿐 아니라, 최신 해외 연구를 토대로 ‘동아시아문학과예술연구’, ‘동아시아문학지리학’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강의의 지평을 넓혀 왔다. 2021년부터는 본 학과의 대학원 주임을 맡게 되어 대학원생의 대학원 생활과 연구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 연구역량

최근 5년간 총 13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동 기간에 저서로는 총 12권이 있으며, 중국의 시와 문화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문화를 잇다 중국을 잇다: 인물로 보는 중국문화 28강』(2019, 뿌리와이파리)의 출간을 주도하였으며, 번역 영역에서는 『이의산시집』(2018, 학고방), 『두보 근체시 명편』(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등의 대표 역자를 담당하였다. 또한 『동아시아학의 이해』(201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동아시아 시대의 리더십』(201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등의 저서를 출간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본교 중국학연구소에서 개최한 ‘인문대중강연’ 시리즈를 기획하고 ‘중국, 당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직접 강연하기도 하였다. 2020년 NAVER 열린연단에서 <당(唐)나라, 송(宋)나라의 시>를 강연하여 대중에게 고품격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도를 높였다.

◆ 국제화역량

강점 중 하나가 바로 탁월한 국제 학술 조직력이다. 우선 2단계 BK21사업, 3단계 BK21plus사업부터 현재까지 참여교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2016), 호주 캔버라 호주국립대학[ANU](201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UCSB](2019)와의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13년에 미국 University of Oregon에서 1년 동안 방문학자를 지낸 것을 토대로, 중문과 교수지만 구미지역까지 망라한 글로벌한 교류망을 지향하였다. 국제학회 논문 발표 실적은 2016년 1월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 2017년 2월 호주 캔버라 호주국립대학, 2018년 1월 홍콩 홍콩대학, 2019년 1월 미국 UCSB 등으로 활발한 국제적 활동을 펼쳐왔다.

◆ 행정역량

2007년 본교에 부임한 이래 2단계 BK21사업에 합류한 것을 시작으로, 3단계 BK21Plus사업, 4단계 BK21사업까지 참여교수로 활동하면서 교육 및 연구 관련 행정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고, 특히 2019~2020년에는 사업단의 부단장으로서 발군의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017~2019년에는 본교 문과대학 연구부학장으로 교육행정의 실무경험을 쌓았다. 전공학회에서도 여러 임원 경력이 있지만, 간략히 현재 상황만 언급하면,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윤리위원, 중국어문연구회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중일어문학과	20년 2학기	17명	17명	100%	
	21년 1학기	17명	17명	100%	

〈표 1-2〉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중일어문 학과	20년 2학기	56	20	35.7	71	32	45.0				127	52	40.9
	21년 1학기	76	22	28.9	80	32	40.0				156	54	34.6

본 교육연구단은 연구 비전을 실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트랜스 교육과 연구를 구축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다.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및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조직 현황

(2021.08)





위와 같이 본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간(2020.09.1~2021.08.31)의 참여인력 구성은 참여교수 17명, 신진연구인력 4명, 참여대학원생 106명(2020년 2학기 52명, 2021년 1학기 54명), 행정직원 1명이었다.

최근 1년간 본 학과의 신입생은 석사 32명, 박사 20명으로, 국내 인문계 대학원의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지원생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등지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국인 학생이 미국, 중국, 일본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뒤 귀국하여 본교에 입학한 경우도 있다. 참여대학원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3〉 1, 2차년도 참여대학원생 현황

학기	지원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	
	석사	박사	석사	박사
2020년 2학기	14	21	6	11
2021년 1학기	11	22	11	10
합계	25	43	17	21

본 교육연구단은 1, 2차년도 석사 25명과 박사 4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대학원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장학금은 BK규정에 따라 6개월간 석사 70만원/월(총 420만원), 박사과정 130만원/월(총 780만원), 박사수료 100만원/월(총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지원대학원생과 참여대학원생에게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과 게재료 등의 지원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게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①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본 학과는 2006년도 2단계 BK21사업을 계기로 대학원 중어중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를 ‘중어일문학과’로 통합하였다. 2013년도 3단계 BK21Plus사업에서는 세계화 추세와 학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30 글로벌 동아시아학을 선도하는 중일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단계뿐 아니라 3단계 성과보고(2019년) 외국어부분 패널에서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으로 4단계 BK21사업에서는 ‘트랜스-동아시아(Trans-East Asia)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으로서 크게 다음과 같은 2개의 교육 비전과 5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교육연구단의 2대 교육 비전과 5대 목표

아시아의 세기인 21세기에 전세계의 동아시아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각 전공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심화시켜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integration)’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과 혁신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인문학을 심층적으로 모색함과 더불어 글로벌한 시각에서 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시아 세계와 비아시아 세계를 연결하고 중국과 일본을 조정하는 ‘이중의 교량적 정체성(dual & bridge identity)’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현재 한국에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글로벌한 시각에서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② 교육연구단 비전 달성도

4단계 BK21사업 이후 현재까지 본 학과는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동아시아학의 새로

은 모델을 정립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이 최근 1년간 박사학위논문과 석사학위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논문들은 본 학과가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정립과 위상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표 1-4〉 박사학위논문 대표 사례

성명	졸업년월	학위 논문 제목
	2021.02	일본 사회와 영화의 재일조선인 서사 연구
	2021.08	중일전쟁 시기(1937~1945) 상하이 대중극 연구
	2021.08	1980년대 재일조선인 사회와 문화지형 연구 - 잡지 『민도(民濤)』를 중심으로 -

〈표 1-5〉 석사학위논문 대표 사례

성명	졸업년월	학위 논문 제목
	2021.02	取り立て조사「も」와 대응하는 한국어·중국어표현의 대조연구
	2021.02	중조사「ね」와「よ」의사용현황에관한고찰 - 중국인일본어학습자와한국인일본어학습자를대상으로
	2021.02	일본 국내정치역학이 영일동맹 체결 및 종식에 미친 영향 - 번벌(藩閥)세력과정당(政黨)세력의대립구도를중심으로-
	2021.02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

◆ Trans-Disciplinary: 통섭적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 방법론 수행

본 교육연구단의 미래 인재상인 ‘트랜스 지식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중일어문학의 학문적 융합뿐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과학기술의 융합과 학술적 교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트랜스 연구가 가능하도록 과감한 학제융합, 어젠다 발굴, 소규모 연구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교 및 학과 간 교류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Core Curriculum의 확대, Cross-Listings와 Code Sharing을 시행하며 타과 전공 교차 수강과 공통 학점 인정 과목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혁신을 달성하고 있다.

◆ Trans-Knowledge: 4차 산업혁명 시대 동아시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창출과 확산

‘Trans-Knowledge’는 한국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결과물을 지칭한다. 한국의 선진적인 IT 기술력에 힘입어 중일어문학(문화, 지역, 비교 연구 포함) 분야에서 Data Science 등을 활용해 이룩한 선도적인 학문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타이완, 아세안, 인도 등의 문명·문화 관련 지식과 정보의 데이터화, 그리고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 한국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ata Science & Artificial Intelligence 정규과목을 신설하고, 온라인 기반의 학습 및 토론 공간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 **Trans-National: 글로벌 심화 전략을 통한 동아시아 교육 및 연구 선도**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여 중국어·일본어·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전망을 그려내고 국제적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의 선발과 교육에 있다. 이를 위해 교내 공동연구(교수-대학원생)를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교수-국외 교수-대학원생)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트랜스 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 **Trans-Society: 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자국의 이익을 둘러싼 충돌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교류와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협력(Co-Operation)을 바탕으로 한 공존(Co-Existence)과 공영(Co-Prosperity)의 모색은 절실한 학문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인 ‘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은 인문사회 전공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인류문명사적 전환을 주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 **Trans-Koreanology: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

본 교육연구단은 서구 동아시아학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한국적 시각이 반영된 동아시아적 사유, 문화전통, 관습, 질서 등에 입각한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의 구축을 통한 한국적 시각의 정립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PBL(Project-Based Learning) 과목을 신설하고,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본 학과의 대학원 과목은 전임교원의 전공에 따라 크게 중국어학, 중국문학, 일본어학·교육 전공, 일본문학·문화 전공, 중일지역·비교문화로 구분된다. 전공 특성상 본 학과의 강의는 정통적인 학문의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분석 대상이나 방법, 문화 배경 등의 급변하는 추세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강의 과목을 살펴보면, 정통적인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되, 분야별 연구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방법론들도 추가되고 있다.

◆ 국제화 심화를 위한 교육

□ [] 교수: <동아시아현대문학의지적배경>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 비전에 맞춰 새롭게 편성된 교과목으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중일 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을 통해 동아시아 현대문학의 지적 배경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일본의 나쓰메 소세키, 후쿠자와 유키치, 중국의 담사동, 양계초, 루쉰 등을 중심으로 중일 양국 지식인의 공통적 관심사와 인식론적 차이 등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와 대학원생은 중일 현대문학의 생성 배경과 차이 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연구단의 어젠다 수행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 교수: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와 21세기>, <동북아-동남아시아 연결성 연구>

해양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고찰하고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발전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수업에서는 ‘동아시아/인도의 해양 연결성’을 화두로 설정하고 통시적, 공시적 두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조감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2021년 1학기 수업에서는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의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연결성을 파악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각의 동남아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현대의 관계사를 개략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어서 최근 각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과 구상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매월 1회 정도 외부의 동남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 어학 교육 방법론을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

□ [] 교수: <중국어어원학>, <중국어음운학>

<중국어어원학>, <중국어음운학> 수업과 더불어 ‘한어중고음’ 강의 시리즈를 계획하였다. 현재 온라인(Utube URL)을 통해 약 20회차에 걸쳐 한어 역사음운학의 기저가 되는 중고음 강연을 청취하도록 준비하였다. 16회차까지 녹화가 완성된 내용은 한 학기 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강의를 듣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제를 완성하면, 기초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은 후 다음 단계로 직접 진입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강의의 기획 목적은 대학원생의 지식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전공 수업 외의 강의이다.

□ [] 교수: <일본어 화용론>, <일본어학개론>

각 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수강생들의 상호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다. 특히, 일본어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시점 차이, 동아시아 관련 한중일 언어의 비교 등 유동적인 시점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일본어학의 제반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립되는 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중국 문학에 대한 한국적 시각의 발신과 연구 지속 가능성 제고

□ [] 교수: <중국시가문학>

본 수업을 통해 오언율시를 대상으로 텍스트 이해와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당시삼백수상석』, 『두율계몽』, 『두시설』 등 청나라 이후 주석가들의 견해를 고찰한 후, 아직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시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유도하는 한편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였다. 전통적인 주석서의 내용과 형식을 고찰하는 가운데 중국고전시가의 기본적 특징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 획득을 목표로 하였다.

□ [] 교수: <중국고전문학비평>

중국 고전문학비평사에 있어서 최고의 저작인 『문심조룡』에 대해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양사 유험전』, 『멸후론』 등과 같은 주변 저작들의 원문을 직접 강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문학 이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수업 과정에서 고대 문화에 관한 통합적 사고력과 이해력을 향상시켰으며, 텍스트 강독을 넘어 다양한 실천 활동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도모하였다.

◆ 대상 지역을 광역화한 융합연구로써 교육 목표의 실효성을 검증한 성과

□ [] 교수: <중국현대작가론>

이전에 다루었던 문학과 영화 사이의 관계를 다른 측면으로 심화하여 검토하였다. 수업에서 마이클 베리(Michael Berry)가 쓴 교재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중국대륙, 타이완, 홍콩 등에서 일어났던 타이완 우서 원주민 학살, 난징대학살, 2.28사건, 1968년 원난 학살, 1989년 천안문 사건 등의 20세기 대규모 역사 재앙과 관련되는 영화와 문학작품을 검토하고 분석한 책이다. 본서를 심도 있게 탐독함으로써 문학과 영화 텍스트가 바라본 역사 시각에 대해 교차적으로 학습하였다. 이와 더불어 홍콩의 문학과 영화 사이의 관계를 다룬 기타 자료들을 통해 중국대륙과 대만의 영화 각색 현황까지 확장적으로 검토하였다.

◆ 대학원생 연구결과로의 확대

□ ■■■■■ 교수: <계량일본어학연습>, <일본어담화분석론>

‘학습자 코퍼스’를 자료로 한 일본어교육 연구와 관련된 개론서와 제2언어습득과 관련된 논문을 독해함으로써 새로운 언어연구의 방법론을 습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연구논문 작성 시 방법론적인 측면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연구능력과 일본어교육의 제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웠다. 더욱이 해당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그 성과를 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콘텐츠를 활용한 응용학문의 인프라 제안

□ ■■■■■ 교수: <일본근현대문학과미디어연구>

현대사회에서는 고도정보화의 진전, 인터넷의 보급, SNS나 정보발신 수단의 다양화를 수반하여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미디어 생산-소비 패러다임 전환은 일본문학문화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디어 지정학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대의 최신 미디어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컨버전스 컬처(Convergence Culture), 팬 연구, 참가형 문화, 2차 창작 연구, 오디언스 연구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자료와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교수자의 강의뿐 아니라 대학원생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대학원생은 일본 근현대문학과 미디어연구를 연결하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현재 동아시아 미디어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및 운영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 ‘트랜스 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명문 대학의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선진적인 ‘동아시아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우수 대학의 벤치마킹 결과, 이들 대학교의 교육과정이 ‘전공영역의 전문화와 학제 융합의 동시 추구’ 및 ‘전인적 인재 양성을 통한 학문 영역의 횡단’에 특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교육연구단도 한국적 시각에 토대를 두어 교과목 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비전과 연구 어젠다에 부합하는 중일 기초공통 과목 14개 신설
- 변화된 대학원 환경과 대학원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 부응하고자 연구자 양성과정인 ‘연구자트랙’과 전문가 양성과정인 ‘전문가트랙’을 두고 각각 맞춤형 교육을 시행
- ‘전문가트랙’ 양성을 위해 ‘문제탐구’ 과목 7개, ‘창의과제’ 과목 7개 신설

가. 교과과정 개편

ㄱ. 전공영역의 전문화

본 교육연구단은 전공에 대한 전문화와 내실화, 통합화를 도모하고 시대적 학문 조류를 반영하기 위해 5개의 전공체제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학제 간 연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전공영역별로 특화된 교육 및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과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 5개의 전공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중국어학 전공(Chinese Linguistics)
- 중국문학 전공(Chinese Literature)
- 일본어학·교육 전공(Japanese Linguistics and Education)
- 일본문학·문화 전공(Japanese Literature and Culture)
- 중일지역·비교문화 전공(Chinese and Japanese Area and Comparative Culture Studies)

ㄴ. 기초공통과목의 신설 및 지정

본 교육연구단은 2020년 2학기 교육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과 일본을 통합한 동아시아 관련 학습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14개의 ‘기초공통과목’을 지정하였다. 현재 지정된 기초공통과목은 아래와 같다.

본 학과의 기초공통과목 신설 현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기초공통	CJL723	일본어문법론 I (JAPANESE GRAMMAR I)
	CJL739	일본어교육연구 I (STUDIES IN JAPANESE EDUCATION I)
	CJL1009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RESEARCH ETHICS AND THESIS WRITING)
	CJL2000	동아시아언어문화(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CJL2001	동아시아일본어문학(JAPANESE LANGUAGE LITERATURE OF EAST-ASIA)
	CJL2002	동아시아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 OF EAST ASIA)
	CJL2003	AI시대의동아시아문학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IES ON EAST ASIAN LITERATURES IN THE AI ERA)
	CJL2004	동아시아현대문학의지적배경(THE INTELLECTUAL BASIS OF MODERN LITERATURES OF EAST ASIA)
	CJL2005	동아시아문화와뉴미디어(EAST ASIAN CULTURES AND NEW MEDIA)
	CJL2006	문헌정보와자료조사(LITERATURE INFORMATION AND DATA RESEARCH)
	CJL2007	트랜스동아시아문화론(TRANS EAST ASIAN CULTURAL STUDIES)
	CJL2008	중국어문학 · 지역학과혁신주체의리더십(INNOVATION LEADERSHIP OF LANGUAGE-LITERATURE RESEARCHES AND AREA STUDIES ON CHINA AND JAPAN)
	CJL2009	학술중국어기초(BASIC ACADEMIC CHINESE)
	CJL2010	학술일본어기초(BASIC ACADEMIC JAPANESE)

ㄷ. 개방형 과목 지정과 운영

중국어문학 전공과 일본어문학 전공의 상호 교차 수강과 통합적 교과 운영을 위해 기존의 중일어문학 관련 전공과목 중 ‘개방형과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대학원생이 전공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차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매 학기 3과목(중국어학 영역/일본어학 영역에서 1과목, 중국문학 영역/일본문학 영역에서 1과목, 중일 비교문화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의 ‘개방형과목’의 개설을 제도화하고 있다. ‘개방형 과목’에 한하여 한국어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교재도 한국어 교재로 지정하도록 교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나. 교과과정과 연동된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체계 구축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 비전에 부합하기 위해 중국어문학 · 일본어문학 전공의 심화는 물론, 중일 통합 교육의 확대와 다양한 형태로 중일 통합적 교과과정을 개편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외국어문학 분야 교육연구단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진적 교육 시스템과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ㄱ.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및 전문가 초청강연회

본 교육연구단은 동아시아학 관련 해외석학초청 강연회와 전문가초청 강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내실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연구단과 참여교수가 주최하고 기획한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는 최근 1년간 총 10건이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학원생에게 해외의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뿐 2021년 1학기 방학 기간을 맞아 ‘경계를 넘나드는 트랜스-동아시아 지식공동체’라는 주제로 국내의 동아시아학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초청된 강연자는 아래와 같다.

◆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

- []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교수), ‘인류세(Anthropocene Age)의 동아시아 연구, 그 과제와 전망’ (2020.11.26)
- [] (일본, 亜細亜大學 교수), ‘해외대학의 한국인 ‘일본어학·교육’ 석학 교수의 연구와 도전—「일본 소재 대학에서 외국인 교원의 경력형성과 연구」 (2020.12.24)
-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교수), ‘閩連科與世界文學視野中的中國現代文學’ (2020.01.13)
- [] (홍콩, 香港中文大學 교수), ‘香港中文與全球華語詞匯的研究’ (2020.01.21)
- [] (홍콩, 香港中文大學 교수), ‘詩言志與中國傳統詩學’ (2020.01.28)
- []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Sasin 교수), ‘태국을 중심으로 본 동남아의 이해: 연결성을 중심으로’ (2021.03.25)
- [] (중국, 復旦大學, 중국어문학과 교수), ‘貞元之風尚蕩—論貞元學潮與貞元文風之關係’ (2021.04.22)
- [] (미국,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수), ‘韻律層級單位及其基礎’ (2021.05.06)
- [] (중국, 清華大學 교수), ‘中國古典文化研究中的數字人文實踐’ (2021.06.24)
- [] (중국, 中國山東大學 연구원), ‘中國“女性向”網絡文學與東亞“女性向”文化’ (2021.08.05)

◆ 전문가 초청강연회

- [] (숙명여자대학교 중국중문학과 겸임교수), ‘세계를 향해 혁신하는 중국’ (2021.07.22)
- [] (순천향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명청(明清)시기 역명전례논쟁의 담론지형과 동서문화 비교연구’ (2021.07.29)
- [] (유라시아 전문록 작가, 역사학 박사), ‘유라시아에서 동북아로, 다시 동아시아로’ (2021.07.29)
- [] (레드독컬처하우스 부사장 겸 COO), ‘동아시아 서브컬처 트렌드: 국경 없는 덕질의 세계’ (2021.08.05)
-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문학과 정의: 동아시아 고전 문학 속의 법과 문학적 상상력’ (2021.08.19)

다. 논문 작성법 강의 개설 및 연구윤리 교육

ㄱ. 논문 작성법 강의 내용

본 학과에는 2015년 1학기에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CJL1009)’이라는 정규과목을 새로이 개설하였다. 이후 매년 1학기에 개설되었고, 본 수업은 논문을 처음 집필하는 석사과정생이 주요 수강 대상이어서 이들에게 적합한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은 구체적인 연구 주제 선정방법, 자료 조사, 선행연구 수집 방법, 논문의 기본형식 및 체재 등 논문 작성의 흐름과 체계적인 작성법 등이다. 또한 학회 발표 및 논문 심사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수업은 보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공이 다른 두 명의 신진연구인력이 팀티칭으로 시행한다.

ㄴ. 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 수업은 KIRD 연구윤리 교육 학습 매뉴얼과 질의 응답집을 주교재로 하고, KIRD 지정 사이버 교육과도 병행하였다. 이에 수료증 이수하는 물론이며, 대학원 연구윤리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논문작성법 수업은 자율적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져 논문작성의 예시를 들어 교육한 후 수강생들 본인의 연구 주제에 맞추어 논문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수강생 전원이 공유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매 학기 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자 윤리 규정을 공지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윤리 함양에 진력하였다.

연구자 연구윤리규정

研究者 研究倫理規定

- (1) 연구자는 독창적인 연구물을 작성하며 자신의 연구행위 및 연구결과 내용에 책임을 진다.
- (2) 연구자는 각자 연구물에 있어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을 하지 않는다.
- (3)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논문을 인용,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 (4) 연구결과물에 기재된 공동저자의 경우, 해당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 한하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

라. 본교 차원의 연구윤리 교육

ㄱ. 연구윤리 교육 운영

본교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 교무회의를 거쳐 학점 취득이 인정되는 연구윤리 과목 개설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대학 본부의 결정에 따라 본 교육연구단은 현재 온라인 강좌를 통한 연구윤리 과목 수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현재 학위취득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http://grp.korea.ac.kr>)의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평가 방식은 ‘과목 이수(Pass)’ 또는 ‘낙제(Fail)’이며, ‘과목 이수’ 판정을 받은 대학원생에게는 학위 논문 제출 자격 요건에 필요한 1학점을 부여한다.

ㄴ. 리포트 표절 검사 프로그램 운영

현재 본교에서는 대학원생이 제출한 리포트의 표절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2015년도부터 블랜디드 러닝을 위한 LMS, ‘Black Board’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Black Board’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모든 리포트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며 신문, 논문 등 기존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표절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으로 교수자가 보다 간편하게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교육연구단에서도 참여 학생들의 리포트와 학위논문의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2학기부터 본교 중앙도서관에서 표절관리 솔루션 ‘Turnitin’을 구독하여 교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ㄷ. 연구윤리 서약서

본교 교강사가 작성하는 강의계획서에는 연구윤리 위반을 엄금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연구윤리 서약서에 의무적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의 처리 절차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규정 혹은 지침 역시 마련되어 있어 학위청구 논문 제출 시 대학원생과 지도교수가 연명으로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ㄹ. 연구윤리 위반 시 조치 사항

현재 본교에서는 연구윤리 진실성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맡는 교원윤리위원회 내에 ‘특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연구 부정행위 제보 처리절차와 내부 고발자 보호 관련 규정(교원윤리위원회 규정 제 12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마. 교내·외 학과 간 공동 교과목 개발과 교과과정의 다양화

ㄱ. 학제적 과목의 개설

본 학과는 본교 학부의 중어중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를 기반으로 한 학제 간의 연계를 기본틀로 각 전공과 중일비교문화 전공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는 두 학과에 기반한 다양한 학제적 과목을 개설하고 각 전공 영역별로 특화된 연구와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ㄴ. 기초공통과목의 신설 및 지정

기존 중일어문학 관련 전공 영역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한편, 동아시아와 관련한 언어, 문화 및 지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14개의 ‘기초공통과목’을 신설하였다.

바. 연구자/전문가 과정의 이중 교육 트랙

국내 인문학의 외국어 관련 분야 대학원의 경우 석, 박사과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연구자(대학 교원 및 연구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석사과정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본 학과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연구 및 진로 방향을 ‘연구자트랙’과 ‘전문가트랙’으로 이원화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본 학과 석사 재학생은 학과 내규에 의거하여 입학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연구자트랙’과 ‘전문가트랙’ 가운데 한 트랙을 선택한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과목을 지도교수로부터 지정받아 이수해야 한다.

ㄱ. 연구자트랙

국제적 감각을 지닌 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로서의 학문적 역량을 갖춘 연구자 양성을 위한 트랙이다. 연구자트랙 과정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래와 같다.

- 각 지도교수별 연구회 및 국내외 석학 초빙 강연회에 참여하도록 지원.
- 교환학생 제도의 기간 세분화를 통한 연수 효과의 극대화 도모.
(석사: 최대 3개월, 박사과정 및 수료생: 3개월-1년)
- 해외 대학으로의 단기 방문을 활용한 체험 학습 추진.
-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위한 연구 업적 창출 적극 장려.
(공동 프로젝트 추진 장려, 학술서 및 논문의 단독·공동 집필)

ㄴ. 전문가트랙

지역, 교육학에 기반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트랙이다.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실용적 교육의 강화를 위해 본 학과에서는 전문가트랙 양성을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트랙 과정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래와 같다.

- 유관 기관에 대한 전문 인턴십 제도 도입 및 지원
-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실용적 교육의 강화
- 다양한 분야의 교외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동아시아 관련 국내외 기업·관공서와의 협정 및 상호 교류
- 전문가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업적 창출 장려

사. 학과의 대학원 학사 운영 내규 및 학생 안내 매뉴얼 구비

ㄱ. 본 학과와 교육연구단의 내규

본 학과 내규에는 전공, 취득학점, 지정과목, 종합시험, 예비논문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연구단 내규에는 참여대학원생 선발규정, 장단기 해외 연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한다. 내규 및 관련 서식은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itch.korea.ac.kr/cjlc/index.do>

ㄴ. 오리엔테이션

신입생을 위한 본교 차원의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은 매 학기 2월과 8월에 열리며, 학생 안내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http://graduate.korea.ac.kr/bachelor/department.jsp>

ㄷ.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사업설명회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행정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4단계 BK21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교육연구단 관련 책자를 배포한다. 설명회에서 참여대학원생 선발 과정 및 참여대학원생의 의무와 혜택을 공지 하기도 하며, 전 학기 참여대학원생 중 ‘우수연구자’를 선발하여 시상과 우수연구에 대한 발표도 진행한다.

아. 학위취득을 위한 학과제도

ㄱ. 학과제도

본 학과는 본교의 규정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을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 이내의 학위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 연한 단축을 위해 학과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구체적인 노력과 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도교수 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월례 연구 발표회 등 수업과 별도의 전공 지도와 개별 멘토링 등을 통해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
- LAB의 조직화를 통해 연구 주제 선정에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주제 추출 및 분석 전 과정을 수시 관리하고 조언하여 논문 작성의 기초를 다진다.
- 월례 발표회를 통한 집단 지도 이외에 정기적 개별 지도를 적어도 월 1회 이상 시행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 매 학기 4단계 BK21사업 참여 지원서에 연구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 현황 및 진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논문 제출 전 반드시 3편의 소논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 기타 생활상의 문제로 대학원 생활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ㄴ. 학위논문 심사과정

본 학과는 아래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과정을 시스템화·규정화함으로써 학위 수여 절차의 선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양질의 학위논문 배출로 이어지고 있다. 본 학과의 학위논문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논문제출 자격시험 → ②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심사 → ③예비논문 제출 및 심사 → ④논문 중간발표 → ⑤본 논문제출 및 심사 → ⑥대학원 심사결과승인과 학위 수여

ㄷ. 논문제출 자격시험

본 대학원의 재학생은 논문 작성에 필요한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외국어 자료에 대한

독해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대학원에서는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 요건으로 외국어시험과 학과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종합시험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학위과정의 제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대학원 학칙 48조). 석사과정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 1과목에 응시하며, 박사과정은 필수과목인 영어 외에 상기 외국어 과목과 한문 중에서 택일하여 총 2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학과개설 전공과목 중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상기의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그 외의 응시요건으로는 석사과정의 경우 ① 2학기 이상 재학, ② 18학점(기초공통 6학점 포함) 이상의 단위취득, ③ 평점 3.0 이상의 성적, ④ 전공과목 중 최소 3과목 이상의 범위에서 출제이며, 박사과정은 ① 3학기 이상 재학, ② 27학점(기초공통 12학점 포함) 이상의 단위취득, ③ 평점 3.0 이상의 성적, ④ 전공과목 중 최소 4과목 이상의 범위에서 출제이다.

종합시험의 출제는 대학원 관리위원회가 학과 교원 중 위촉한 출제위원이 담당하며 1과목당 2인 이상의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시험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판정을 받는다. 불합격자는 차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ㄷ.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심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은,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종합시험 응시’, ‘예비논문 제출 및 심사’, ‘논문 중간발표’의 과정을 통과한 자에 한하며, 박사과정의 경우는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최소 3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자 중 상기의 석사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과한 자에 한한다.

ㄹ. 예비논문 제출 및 심사

본 학과는 학위논문의 체재 및 완성도의 향상을 위해 매년 4월과 10월에 예비논문 제출 및 그에 대한 심사를 제도화하고 있다. 석사학위 청구자는 본 논문 제출 1개월 전, 박사학위 청구자는 1학기 전에 반드시 예비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본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3인에 의하여 정식 논문에 준하는 평가를 행한다.

ㅁ. 논문 중간발표

예비논문 심사를 통과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해당 전공학과 교수와 재학생이 참여하는 학과주최 ‘논문 중간발표회’에서 논문 요지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ㅂ. 본 논문 제출 및 심사

상기의 과정을 통과한 학위청구자에 한해 지도교수와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으로 정식 논문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하와 같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 심사위원 선정: 본 학과는 본교 전임교수 혹은 해당 분야의 권위가 있는 기타 대학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석사청구논문에 대해서는 3인(지도교수 포함), 박사청구논문의 경우는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박사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교외에서 위촉하고 3회 이상의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심사과정: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며,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3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대학원에 보고한다.

○. 대학원 심사결과 승인과 학위 수여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 위원회에서는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 결과는 논문의 심사 요지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성적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되며 총장의 최종승인을 거쳐 학위가 수여된다.

사. 전문가트랙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

본 학과는 2021학년도 2학기 전문가트랙의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을 목표로 ‘중일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안)’을 본교 일반대학원에 제출하였고, 제도 운영을 시행하고자 ‘중일어문학과 요람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취업 및 실무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PBL방식의 수업과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도입 등 특성을 강화하고, 이를 입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②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은 4단계 BK21사업의 5대 교육 목표 중 ‘Trans-Society’ (트랜스 교육과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를 지향함으로써 사업성과의 보급과 지식공동체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이로써 구성원들이 산업 및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 구성체의 일원으로서 교육 방면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1년간 각 방면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역량의 대중적 실천과 확산

ㄱ.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의 공유

- [] 교수: <제4회 KU 혁신 포럼: COVID-19 이후 넥스트 노멀과 대학의 역할>(2020.11.19) 중 <제3세션: 넥스트노멀 시대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면> 파트의 좌장으로 참여하였다.
- [] 교수: <2020년 KU e-Learning 심포지엄>(2020.11.20) 중 <SESSION V.교수에게 듣다>에서 온라인 교육의 장단점 분석 및 교수자-학습자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본 온라인심포지엄은 COVID-19로 인해 급변하

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과 향후 대학교육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교내외 저명인사 및 국내고등교육기관의 이러닝 담당자 다수가 참여하였다. Youtube를 비롯한 다수의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지식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다.

ㄴ. 눈높이에 맞춘 전공지식의 대중 확산

- [] 교수: 대학원생의 기초 전공지식 향상을 위한 <중국문학사> 영상 강의를 제작, Youtube에 업로드 하여 전공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 [] 교수: 국립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가 주최한 <중국현대문화연구실 특강/좌담 시리즈>(2020.12.18)에서 특강 <문학 수용 매체로서의 시청각 문화와 중국문학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강연하였다. 이 강연은 대중적인 시청각 문화를 통한 중국문학 접촉과 이해에 대한 견해를 연구자 및 대중과 공유하였다.

ㄷ. 사회문제 이슈로 한 대중미디어 활동 및 강의

- [] 교수: 국립목포대학교 인문대학이 주최한 인문대학 교수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대학이 나아갈 길>(2020.11.10)에서 특강 <플립트 클래스 기반 융합형 공통교양 과목의 설계: 고려대 「자유·정의·진리」의 사례>를 강연하였다. ‘산업혁명’과 ‘인문학 위기’의 시대에 인문학의 사회기여를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해 관점을 공유하였다.

ㄹ. 정부 관장 교육 과정 자문과 국제 교육 교류 기여

- [] 교수: 2020년도 외교부 사업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2020년 11월 이후, <일본 고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본고전적연구국제콘소시움(日本古典籍研究国際コンソーシアム)>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 [] 교수: 2021년 6월 25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전문 과정 <일본 다시보기> 중 <일본 미디어와 문화콘텐츠>를 담당하였다.

ㄹ.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교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에 초청되어 강연하였다. 이 강연에서 <唐詩는 어떻게 正典이 되었나?>(2020.11.13), <중국 한시의 쌍벽: 이백과 두보>(2021.05.28)를 주제로 중국 고전문학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나. 대중서와 외국어 학습 교재를 통한 교양효과 증진

ㄱ. 대중서의 저술과 출판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도모

- []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진이 주축이 되어 제작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문화』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본서는 현재 베스트셀러로서 일본의 도쿄신문, 주니치신문, 한국의 교수신문, 디지털타임스, 위클리 인터뷰기사, 프랑스 시사월간지 르몽드디플로

마티크 한국어판 등 다양한 미디어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다. 이는 교육 및 연구성과를 교육현장과 사회에 환원한 우수한 사례이다.

ㄴ. 대중 외국어 학습을 위한 서비스

- [] 교수: 『문화로 보는 일본어(文化で見る日本語)』(솔과학, 2021.05, 공저)는 일본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실 활동이 가능한 워크북을 포함시켜 언어와 문화를 잇는 수업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본 공저는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언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에 문화적 요소를 접목하였다. 현재 해외(아마존)판매를 염두에 두고 영어번역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한국 발 일본어교재의 세계화와 국내 일본어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③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가. 교육과정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역량 육성 프로그램 마련

- ㄱ. 전문가 트랙에 산업계 및 연구소 연계한 PBL 교과목 운영하여 산학협력 추구
- 전문가 트랙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 PBL 및 캡스톤 디자인 방식의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현재 교내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가 트랙의 실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산업·사회의 현안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시야를 공유하는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종합문화콘텐츠 회사인 레드독컬처하우스의 부사장인 [] 연사의 특강 <동아시아 서브컬처 트렌드: 국경 없는 덕질의 세계>(2021.08.05)는 한·중·일의 관련 산업 현황을 중심으로 트랜스-동아시아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연결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나.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관리 및 홍보 체계 구축

위의 세부 사업 실현을 위해 학과 내에 기획, 관리, 점검과 홍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본 교육연구단은 현재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추가적인 유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 ㄱ. 시민 참여자를 위한 교육연구단 내 홍보 매체 활성화
- 홈페이지 접근성 증대: 2021년 3월 교육연구단 홈페이지를 본교 통합 홈페이지 플랫폼인 CMS 홈페이지로 개편, 교육연구단 홍보 매체로서 대중화 사업에 맞게 개선하였다.
-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증진: 학과 대중 활동의 인프라로서 교내 글로벌일본연구원(원장 [] 교수)과 중국학연구소(소 [] 교수)와 제휴, 홍보 및 행사 진행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2021년 1~2월 본 교육연구단과 중국학연구소 공동주최로 해외석학 초청강연시리즈 <넥스트 노멀 시대 세계와 대화하는 트랜스 중국어문학> 을 개최하였다.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①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0년 2학기	11	11		22
	2021년 1학기	21	9		30
	계	32	20		52
배출 (졸업생)	2020년 2학기	5	5		10
	2021년 1학기	6	6		12
	계	11	11		22

②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신청서에 명시된 우수 대학원생의 확보 및 지원 계획은, 장기 방문연구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연구실 별·연구 어젠다팀 별 LAB 지원,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발표 기회 제공, 우수 학술지 투고 논문 게재료 지원, 우수 외국인 학생 지원, 진로 및 세미나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확보 및 지원 계획에 대비한 실적은 아래와 같다.

우선 대학원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한 해외 장기 방문연구 프로그램은 COVID-19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대학원생은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협정교 교환유학생 자격으로 입학통지서를 받아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일본에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도일이 어려워 포기하였다. 그러나 범유행 이전에는 대학원생 2명(박사과정, 석사과정)이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Comparing Japanese Studies in Korea and Germany> (2020.01.16-2020.01.20, 독일 튀빙겐대학)에 참가하였으며,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범유행 상황에서도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2020.10.16-2020.10.17, 인도네시아)에 대학원생 7명(, , , , ,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2020.11.21, 대만 개최)에 대학원생 7명(, , , , ,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단기연수의 일환으로 연구 성과 발표, 연구 시야 확장, 그리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의 참가를 적극 장려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실 별·연구 어젠다팀 별 LAB 지원은, 각종 연구실 별 LAB 활동 및 전공영역을 횡단하는 어젠다팀 별 LAB 활동을 전폭 지원하였다. 4단계 BK21사업에서는 교수-박사과정생·수료생-석사과정생·수료생 간의 유기적인 공동연구를 한층 더 장려할 계획으로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국내외 전문가 연계방식을 모색하고 월례회의를 진행하여 학술대회 발표 및 공동 논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어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발표 기회 제공은,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및 교육 비전을 고려하여 전략적 기획을 통한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추진

을 목표로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2020.10.17, 온라인 개최)에 패널 <친밀권을 다시 잇다—전후 동아시아 젠더 표상(親密圈を紡ぎ直す—戦後東アジアのジェンダー表象)>과 <아동과 ‘전쟁’이 만나는 장—해후·변용·전승(子どもと「戦争」の出会う場—邂逅・変容・伝承)>을 마련하여 7명의 대학원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어 동아시아에 있어 일본 연구의 학술교류와 차세대 연구자의 육성을 위해 경계와 세대를 넘은 국제적인 연구교류의 장이 될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제5회 국제학술대회>(2021.11.26-11.28, 고려대학교 개최 예정이었으나 온라인으로 개최)에도 본 학과 대학원생이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학술지 투고 논문 게재료 지원은 대학원생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40건에 대한 3,908천 원의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였으며, 대학원생이 A&HCI, SCI급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 그에 상응하는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 학생 지원 관련하여 대학 본부는 우수 유학생 유치와 안정된 연구환경 제공을 위해 기숙사, 각종 생활 지원, 한국어 보조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교육연구단은 외국인 [REDACTED], [REDACTED] 등에게 내국인 학생들과 동등한 장학금, 해외연수, 논문 게재료 등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 및 세미나 지원은 석사 졸업 후 취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4단계에서는 ‘전문가 트랙’에 역점을 두어 <경계를 넘나드는 트랜스-동아시아 지식공동체>(2021.08.05)를 주제로 [REDACTED](중국산동대학 문학원 연구원)과 [REDACTED](종합문화콘텐츠회사 레드독컬처하우스 부사장)를 초청하여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기업, 경제, 문화 등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21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을 목표로 문제탐구와 문화창의과제 15과목을 매 학기 1과목 이상 개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운영안 제출과 운영을 시행하기 위한 ‘중일어문학과 요람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취업-실무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PBL방식의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도입 등을 강화하고, 이를 입시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본 교육연구단은 해외파견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대학원생의 연구력 증진을 도모하고, 장학금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학원생의 해외파견은 참여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학위논문 집필을 위한 자료 수집, 해외 차세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이는 국제적 연구 능력을 제고하여 뛰어난 학위논문 집필과 취업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1.02/2021.08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2월 졸업자	석사	5	0	0	0	5	0	20.00%
	박사	5			0	5	2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6	3	0	0	3	0	0.00%
	박사	6			0	6	0	
계	석사	11	3	0	0	8	0	10.57%
	박사	11			0	11	2	

<표 2-2>와 같이 본 학과는 2021년 석사 11명, 박사 11명을 배출하였다. 이 중 석사 졸업생 3명은 본교의 박사과정을 진학하였으며, 박사 졸업자는 중일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대학원에서 연마한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2021년 졸업자 중 본 학과의 대표적인 우수 취업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2021년 2월 졸업): 협성대학교 중국통상문화학과 조교수

[] 중국어문논총과 중국어교육과연구 등 KCI급 등재지에 2019년 4편을 게재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박사논문과 연계된 학술논문의 탁월성을 인정받아 2021년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협성대학교 중국통상문화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 (2021년 2월 졸업): 신구대학교 관광서비스중국어학과 조교수

[] KCI급 등재지에 2020년 3편을 게재하는 등 현대중국어법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2021년 박사학위 취득 후 신구대학교 관광서비스중국어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대중국어법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2021년 8월 졸업): 한림대학교 중국학과 시간강사

[]은 본 학과에 재학 시 한국중국소설학회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015년을 제외한 8년간 매년 학술논문 게재나 학술대회, 신서소개, 학계동정 등 꾸준한 기고 활동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였다. 2021년 박사학위 취득 후 한림대학교 중국학과 강사로 임용되었으며, 현재 한국중국소설학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위의 졸업자 이외에도 [] (2021년 2월 졸업), [] (2021년 2월 졸업), [] (2021년 2월 졸업), [] (2021년 8월 졸업), [] (2021년 8월 졸업)은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 교양교육원 강사로 각각 임용되었으며, [] (2021년 8월 졸업)은 공군사관학교 어문학과 강사로 임용되었다. 이들은 각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및 교양과목을 가르치며 본 학과에서 습득한 동아시아 관련 지식을 후속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박사학위자는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자 트랙’을 중심으로 한 진로 교육이 연구자로서의 기반을 갖추는 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석사학위자의 경우에는 국내 박사과정의 진학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이나 직장에 취업한 사례가 아직까지 적은 상태이다. 최근 사회적 수요와 대학원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졸업생의 진로가 다양화·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현황 파악에 힘쓰고, 현재 검토 중인 ‘전문가 트랙’ 내규를 확정·적용하면 앞으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본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간(2020년 9월~2021년 8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업적물은 일반논문 69편, 학술저서 5편으로 총 74편을 기록하였다.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는 1.19편에 해당한다(환산 기준 62명). 이로써 선정평가 당시 작성된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의 최종 목표치 1.16편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대학원생 62명 중에서는 최근 1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5편 게재한 박사과정생이 1명 있었고, 연간 4편이 2명, 3편이 10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양적·질적 연구능력 향상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표 실적을 몇 가지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표 2-3〉 참여대학원생 대표 연구실적

연번	저자	논문/저서명	학술지/출판사명	출판연월
1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 외교: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일본학	2021.08
2		청일전쟁 시기 중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지정학적 인식 비교연구 -이홍장(李鴻章)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10
3		陸游 登臨詩의 공간 기호론적 분석	한중언어문화연구	2021.08
4		미키 로후 시선(三木露風詩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21.08
5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の誤用分析 -「が」「を」「で」「に」を中心に-	일본학보	2021.05
6		魯迅的文學現代化策略研究 —以其筆下的‘鬼’形象為例	중국어문학지	2021.03

위에 제시한 참여대학원생의 대표 실적은 트랜스 동아시아 학술연구를 지향하는 4단계 BK21사업에서 주요 선례가 되는 가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표 실적을 상세히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 [] ,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 외교: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본 논문은 []이 『일본학』(2021.08)에 기고한 것으로 기존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이나 해양정책 연구의 연장선으로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행보를 다룬 것이다. 이는 전후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중 대립이나 중일 대립의 맥락을 동남아시아에서도 발견하고, 트랜스 동아시아 시대의 연구 관점을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한 가치 있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 [REDACTED], 「청일전쟁 시기 중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지정학적 인식 비교연구 -이홍장(李鴻章)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제정치 구조의 전환기적 상황마다 부여 받은 의미를 다루었다. 19세기 동아시아가 맞이한 전환기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홍장(李鴻章)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두 인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청일전쟁 시기 이홍장과 야마가타 아리토모 두 인물은 자신들이 새롭게 정립한 한반도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라는 공간을 자국의 세력권 아래에 놓기 위한 국가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러한 작업은 4단계 BK21사업의 ‘트랜스-동아시아 시대 선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 [REDACTED], 「陸游 登臨詩의 공간 기호론적 분석」

본 논문은 [REDACTED]이 [REDACTED] 교수와 공동으로 남송(南宋)의 시인 육유(陸游)가 남긴 등림시(登臨詩)를 분석한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 조망하는 등림 문화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존재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이나 일본의 관련 문학작품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시 긴장된 정세 속에서 지은 등림시는 오늘날 동북아 정세와 연동하여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REDACTED], 『미키 로후 시선(三木露風詩選)』

본 저서는 미키 로후(三木露風)의 번역서다. 기존 일본 근대시 논문과 관련해 시선집을 출간하였다. 미키 로후는 일본 근대시의 형성과정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서구의 상징주의가 일본에 수용되는 과정에 한 획을 그었다. 하지만 ‘잊혀진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어 그의 상징시를 번역하고 소개하는 과정은 서구화와 근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단서가 되고, 본 교육연구단이 지향하는 전공지식의 대중 확산과도 부합한다.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の誤用分析 -「が」「を」「で」「に」を中心に-」

본 논문은 본 학과의 박사과정생 1명과 석사과정생 3명이 한국일본학회에서 공동 발표한 (2021년 2월)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완성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구어에서 범하는 격조사(格助詞) 4개의 오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과 원인을 고찰한 것이며, 선행연구를 넘어서 반복적 자기수정(自己修正)을 통한 실수의 정정 등을 밝혀냈다.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이 지향하는 연구 어젠다 별 LAB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이다.

- [REDACTED], 「魯迅의文學現代化策略研究 -以其筆下的‘鬼’形象為例」

본 논문은 중국 작가 루쉰을 연구한 것이다. 근대화 문제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에 중요한 문제였는데, 동아시아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루쉰의 ‘귀신’이라는 이미지 활용 전략을 탐구함으로써 동아시아 삼국의 문학 창작 기법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REDACTED]은 본 논문으로 중국어문학회 2021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본 학과의 최근 1년간(2020년 9월~2021년 8월)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연구 실적은 50건이었다. 평가대상 1인당 학술대회 환산 건수는 0.80건에 해당한다(환산 기준 62명). 참여대학원생 62명 중에서는 최근 1년간 학술대회 발표 건수가 6건에 이르는 박사수료생이 1명 있었고, 연간 5건이 1명, 4건이 2명, 3건이 3명 등 활발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주요 실적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일시	주관	학술대회명	국내/ 국외	참석자	발표수
2020.09.19	한국일본어학회	제41, 42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1
2020.10.17	東アジアと同時代日 本語文学フォーラム	次世代オンラインフォーラム2020	국외		7
2020.11.21	東アジア若手研究者 合同研究フォーラム	依存と融合ー日本研究の新たな展望	국외		5
2020.12.05	한국일어교육학회	제37, 38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1
2020.12.11	현대일본학회	2021 한일협력의 신지평모색	국내		1
2021.02.06	한국일본학회	제101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8
2021.04.17	대한일어일문학회, 일본어문학회, 한국일본문화학회, 한국일본어문학회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2
2021.04.24	한국일어교육학회	제39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1
2021.05.22	한국일본근대학회	제42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1
2021.05.29	동아시아일본학회	2021년 춘계국제학술대회	국내		3
2021.06.19	한국일어일문학회	2021년 하계국제학술대회	국내		3
2021.08.20	한국일본학회	제102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2
2021.08.20	언어과학회	2021 언어과학회 하계학술대회	국내		1
2021.08.20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18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1

5.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선정평가 당시 4단계 BK21사업에서는 7차년도까지 3단계 3.86편 대비 120% 향상된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4.63편을 목표로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향후 본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층 향상된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 인재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본 학과는 우수 인재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자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향성에 합치하는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능동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연구인력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하이브레인넷을 비롯한 채용 관련 사이트, 자체 홈페이지, 교내 웹사이트를 통한 광고 게재와 홍보 책자 등을 이용하여 신진연구인력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4단계 BK21사업의 교육 목표 및 비전 실천을 위해 학과의 교육·연구 영역과 합치하면서 외국어(영어) 능력이 뛰어나고 외국어(영어) 연구업적을 갖고 있는 신진연구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공간을 마련하고 잠재능력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어젠다 수행의 수월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규정에 의거한 연봉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총 2건 31만원의 논문 게재비와 도서구입비, 복사비 등을 지원하였다. 해외단기연수비 및 학술대회 참가비 등 기타 연구 활동비는 3단계(20회에 걸친 연구활동 지원비 총 14,028천 원) 대비 25%(18,000천 원 상당) 상향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COVID-19 범유행으로 유보된 상태이다. 향후 신진연구인력이 연구논문을 각종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진연구인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 우수 대학 및 연구소 파견 및 해외 체재 및 숙박 등 체류를 위한 지원 방안은 범유행 상황의 추이를 보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교육연구단은 기존의 단기 강연방식 이외에도 세미나 형식으로 신진연구인력의 학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주최한 <제1회 차세대일본연구자연구회>(2021.07.24)에서 「로마자운동으로 보는 아쿠타가와문학」을 발표함으로써 20세기와 21세기 다언어상황에 관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열었으며, ■■■■■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중문화학과 한중웹문화비교연구(대학원 수업) 특강에서 <중국 웹콘텐츠 시장의 지형 그리고 연구자의 시선>(2021.05.03), 한국중국소설학회 정기학술발표회 <공연예술과 중국소설>(2021.06.12)에서 「트랜스미디어 서사플랫폼으로서의 선협(仙俠)」을 발표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소개하고 확산시켰다. 이 밖에도 신진연구인력은 각종 학술지에 자신들의 논문을 꾸준히 게재하였는데, 최근 1년간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은 ■■■■■(논문 1편), ■■■■■(논문 4편, 공저 1편), ■■■■■(논문 1편, 공저 1편), ■■■■■(논문 1편)이다. 향후 해외 우수 대학과 학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술네트워크를 확장시키기 위해 석학 초빙 횟수를 20% 증가(3단계 최근 3년간 연평균 10회→4단계 연평균 12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는 신진연구인력의 교수자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양교육원의 교양과목과 더불어 아카데미 코디네이터로서 대학원생들의 멘토링과 논문 첨삭 지도를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른 최근 1년간 실적은 아카데미 코디네이터(Academic Advisory)가 ■■■■■ 1건, ■■■■■ 2건이며, 논문 클리닉 실적은 ■■■■■ 2건이다. 또한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

문학 포럼>(2020.10.16-2020.10.17),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2020.11.21) 등 신진연구인력이 대학원생의 해외 학술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신진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하여 보다 양질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교 도서관뿐 아니라 글로벌일본연구원 검색 시스템을 개방하여 동 연구원의 정보자료원에 소장 중인 문헌 및 디지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일본도서 자료 검색 시스템>, <닛케이 텔레콤21>과 각종 사전류 및 자료를 웹상에서 공개하는 레퍼런스 서비스 <재팬놀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학연구소 중국학 자료실 또한 개방하여 중국 관련 각종 단행본, 전집류, 사전류, CD, 관련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열람과 복사를 제공하고 있다.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트랜스-동아시아’ 및 ‘트랜스-national’을 지향하는 바, 그간 BK사업을 수행해오면서 교육의 기민한 국제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비록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전방위적인 국제화 교류는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류방법을 통해 다방면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적 질적으로 심화된 국제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본 학과는 외국어문학 분야로서 국제적 감각을 가진 ‘트랜스-동아시아’ 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 우수 대학과 복수학위제 협정을 맺고 학생을 교환해왔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ㄱ. 시행 프로그램: TEACH(Transnational European and East Asian Culture and History), 독일 본대학 및 일본 쓰쿠바대학과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과 복수학위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ㄴ. 추진 프로그램: 현재 본교 문과대학과 협정 관계인 독일 튀빙겐대학 한국학과와 교차 전공 교류를 통한 복수학위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2019년 타이완 국립타이완대학과 약식 협약을 맺고 복수학위제를 논의 중이나 COVID-19 상황으로 잠정 연기하였다.

나. 해외학자(전임교수·초빙교수·객원교수 등 포함) 활용 계획 및 역할

본 교육연구단은 세계 석학들이 자유롭게 수시로 내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초빙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그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ㄱ. 해외석학 초청강연

최근 1년간 총 10명의 해외석학이 방문하여 강연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권역별로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미국 등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서구 학자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최신 해외 연구 동향 파악 및 교육연구단과 학과 차원의 국제적 접촉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ㄴ. 학과 외국인 객원교수와 함께 하는 국제 학술 네트워킹

본 교육연구단에는 현재 3명의 외국인 객원교수, 전임교원으로서 1명의 중국어 모국어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해외 네트워킹 방면에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외국인 교수별 소속 대학과 학술활동 권역에 대한 네트워킹으로 국내 학자, 대학원생과 연계.
- 대학원학생의 국제학회 발표, 국제학술지 투고 시 외국어 발표 및 학술 외국어 작문 지도 역할.
- 국내 국제학회 참여 및 국내 논문지에 발표, 국내 교수와의 공동연구 및 토론 활성화로 학과가 국제적인 학술 플랫폼이 되는 데 기여.

ㄷ. 배후 학술 유관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국제학술 활동과 연구역량 강화

본 교육연구단과 밀접하게 공조 관계를 유지해온 교내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서로 유리한 점을 취해 소모적 요소를 줄이면서 공동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 중국학연구소: 본교 청산MK문화관 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체 자료실 등 기본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학술등재지 『중국학논총』을 발간하고 있으며, 기존 BK21사업과 공동 학술 행사, 국내외 학자 초청 프로그램 등의 경험이 풍부하다.
- 글로벌일본연구원: 본교 청산MK문화관 1-3층 소재로 광대한 해외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반적 연구 인프라를 완비하였다. 상근 교수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체 연구 생산역량이 높으며 BK21사업과 공동 학술 행사 및 프로그램 경험이 풍부하다.
- BK21사업과 국제화 분야 협력 가능 활동: 위 기관들은 해외 우수 학술 단체와 MOU 협정, 해외 학자 초청 교류, 해외 석학 초청강연회, 연속 특별강연회, 콜로키움 등 다양한 국제화 활동영역에서 본 교육연구단과 협력이 가능하다. 4단계 BK21사업에서는 본교 민족문화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소 등과도 필요 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및 계획

본 교육연구단과 중일어문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3단계 마지막에 30%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현재 45%에 이를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본 학과는 아래와 같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ㄱ. 외국인 학생 상담 시스템의 체계화: 생활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멘토링 시스템(외국인 유학생 위한 Advisory 제도)을 운영 중이다. 기초 및 학술용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학생 전용 한국어 논문작성 프로그램을 운영, 적극 활용하도록 계도 중이며, 본 교육연구단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ㄴ. 학술용 언어 능력 심화: 한국어·모국어 양국 언어에 의한 논문 작성을 활성화하고, 유학생의 해외 발표는 학회 공용어로, 졸업논문은 한국어로, 자국 출판은 모국어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술 외국어 능력을 계도하고 있다.

라.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현황과 향후 계획

현재 COVID-19 상황으로 일부 국제학술대회 기획이 잠정 연기 혹은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1.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트랜스-동아시아’라는 연구 모델을 설정하고, ‘트랜스 교육과 트랜스 연구를 통한 통섭적 창의 인재 양성’과 ‘트랜스-동아시아 교육 연구 모델과 지식의 확산을 통한 지역 연대의 가치 모색’이라는 2대 교육 비전을 수립하여 각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크게 중국어학, 중국문학, 일본어학·교육, 일본문학·문화, 중일지역·비교문화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볼 때 본 교육연구단은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연구는 물론, 사회과학과의 학제 간 연구까지 수행이 가능한 집단으로 자부할 수 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참여교수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부합한 연구 성과의 양적·질적 향상을 이룩하였고, <최우수 학술 도서> 선정 및 국내외 주요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되는 등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참여교수의 최근 1년간의 대표적인 우수성과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방법론 제안

■■■■ 교수의 「Facing China Differently and Equally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ese Policy Behaviors-」(『Contemporary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trategic Rel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2020)는 2013년 초부터 2019년 중반까지 한일 양국의 ‘중국 정책’ 행동을 분석한 논문으로, 한일 양국의 중국 정책에 대한 레토릭이 신화이거나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양국의 정책 판단이 중견국(미들파워) 전략으로 통합되는 것이라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이 동아시아 지정학에 있어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 본 논문은 동아시아 주요 현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은 실용적인 성과이며, ‘트랜스- 동아시아’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Scopus 학술지 『Contemporary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trategic Rel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에 게재되어 동아시아학의 한국 발신이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목표에도 부합되는 성과이다.

■■■■ 교수의 「韓國早期對中國新文學、台灣文學、自由中國文學的接受及認識—從日據到冷戰初期的翻譯和話語變化為中心」(『중국학논총』, 2021)은 ‘중국 신문학’과 ‘대만 문학’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수용되고 인식된 과정과 냉전 초기에 심상지리(心象地理)의 방식에 의해 ‘자유중국’ 문학으로 통합되는 역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동아시아문학 수용의 역사와 그 속에 내재된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 논문이다. 2019년 4월 26일 타이완 국립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개최된 <제2회 전후 아시아문학과 문화전과 국제 연구(第二屆戰後亞洲文學與文化傳播國際工作坊)>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였고, 이후 국내 전문학술지에 투고하였다. 2021년 7월 17일에는 <도쿄 타이완문학연구학회(東京臺灣文學研究學會)>에서 「冷戰初期以前の韓国における

台灣文學認識」을 일본어로 강연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의 자료가 망라되었을 뿐 아니라, 발표 공간 면에서도 타이베이, 서울, 도쿄로 이어지며 해외 연구자와의 소통을 추구함으로써, 본 교육연구단의 ‘트랜스-동아시아’ 어젠다에 매우 부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학문후속세대에게 유의미한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콘텐츠를 활용한 융용학문 연구 제안

교수의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중국문학』, 2021)은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으로, ‘AI 시대’에 대응해 중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볼 다섯 가지 세부 분야인 전산비평,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번역, 정보시각화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AI 시대에 중국 고전문학 교육 분야와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AI 콘텐츠를 활용한 연구는 본 교육연구단의 ‘트랜스 연구’ 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교수의 논문 「語言學在AI時代的核心研究對象是什麼」(『철학·사상·문화』, 2020)에서는 언어학 분야에서 ‘AI 시대’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연언어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언어 의미에 관한 현상과 세부 구조 분석 및 이해 등을 설명하고 새로운 이론 체계를 정립하였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순수언어학과 응용언어학의 융합연구 방법을 강구한 선구적인 연구로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

◆ 산학 협력 교육 방법론 제안

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연구원이 공동연구한 논문 「어문계열 대학원 PBL 교과목 설계와 운영 방안 - K대학 중일어문학과 ‘중국고전문학PBL’ 수업을 중심으로」(『중국학논총』, 2021)에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교수자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학습 방법인 PBL을 대학원 교과목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본 대학원에 새로이 개설할 PBL 과목 설계와 운영 지침의 기반을 마련한 논문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해외 학술 교류를 통한 지식의 확산

교수는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과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国文学研究資料館)이 공동 주최한 포럼 <동아시아 지식의 교류(東アジアにおける知の往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식의 교류』(역락, 2021)와 『東アジアにおける知の往還』(勉誠出版, 2021)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판하였다. 본 저서는 서책 문화의 양상 연구, 재난문학을 중심으로 국가적 재난 극복 양상 연구, 에도, 경성, 파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 표상사, 근대문학에서의 도시 표상의 위치 정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연구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물은 해외 연구자와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주도함으로써 한국 학자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한일 동시 출판으로 국제적으로 지식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교수는 일본 도쿄가쿠게대학(東京学芸大学)의 교수와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21년 『문화로 보는 일본어(文化で見る日本語)』(솔과학, 2021)를 출판하였다. 본 저서는 일본문화와 관련된 주요 테마와 해당 키워드를 일본어로 설명함으로써 일본문화와 일본어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심화시킬 수 있는 교재로,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개인의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 그룹별 협동학습 등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본 저서는 영문판으로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권역을 넘어 세계로 발신하는 국제 공동연구의 사례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동아시아 언어의 현상 연구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 郭璞(A.D. 276년—324년)의 反切과 直音 형식의 音注와 韻文의 압운에 반영된 陰聲韻 韻母의 음운체계[음계]와 개음체계, 성모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權赫竣 2017, 2018, 2019). 「郭璞의 晉代 漢語 陽聲韻 음운체계」(『중국어문논총』, 2020)에서는 위의 연구를 이어 그가 인식한 陽聲韻 운모의 음계를 수립하였다. 郭璞은 西晉(A.D. 263년-316년)과 東晉(A.D. 317년-420년)에 생존했던 인물로 그의 음계를 수립함으로써 上古漢語와 中古漢語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 음운변화[音變]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추가적 단서를 확보하였다. 향후 입성운 음운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위진 시기의 郭璞이 인식한 음운체계 수립이 완성된다. 이 음계는 상고에서 중고까지 이어지는 음운의 연속성의 중간 점검지로서 음운 변천의 타당성과 시기적 순서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구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

교수의 「현대중국어의 ‘종결성’과 ‘종결성분’ - 어기조사와 보어 구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2020)는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종결성과 종결성분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종결성과 종결성분을 대조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독창적인 가치가 돋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한·중 언어 비교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교수의 「日本語作文の協同推敲過程におけるコメントの役割」(『일본학보』, 2020)는 일본어 학습자에 의한 작문이 협동 되고 활동을 통해 어떻게 수정되어가는지를 양적·질적인 면에서 분석한 논문으로 협동 되고에 있어서 글을 작성하는 학습자와 코멘트를 주는 학습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본 논문은 작문의 수정 과정을 밝힐 뿐 아니라, 논문 결과를 실제 일본어 지도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는 등 교육과 연구 영역이 융합된 논문으로 학문적 성과와 의의를 가진다.

◆ 동아시아 정통 문화의 심화 연구

교수의 『국보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源氏物語絵巻)』-일본고전문학을 그림으로 읽다』(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는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 원작에 실린 모든 그림과 그

림 설명문(詞書) 도판과 이를 해설한 원문(原文), 석문(釈文), 한국어 번역문, 그림 해설을 함께 수록한 학술 저서이다. 본 저서는 『겐지모노가타리』와 국보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에 관한 해설, 본문 비교, 기초 지식을 수록함으로써, 일본 고전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겐지모노가타리』 관련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본 저서는 2020년 12월 한국대학출판협회가 선정하는 <2020 올해의 우수도서>에 ‘학술 부문 최우수 도서’로 선정되었다.

교수의 논문 「노(能) 작품 속의 달빛의 역할」(『일본학보』, 2021)은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제아미의 노(能) 작품에서 주인공의 불교적 구제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는 형태로 설정된 달빛에 주목하여, 작품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하였다. 주인공들이 품었던 집심(執心)을 해소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달빛의 영향이 컸으며, 불교적인 구제까지는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주인공들은 제각기 나름의 원하던 바를 이루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달빛에 주목하여 구제와 집심의 문제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노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였다.

교수의 「조선 고종 <북묘묘정비(北廟廟庭碑)> 주석과 번역(1)」(『중국어문논총』, 2021)은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관우의 북묘묘정비(北廟廟庭碑)를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 이 과정에서 비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고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북묘묘정비에 최초로 주석을 달았으며, 비문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한 점에서 문헌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 동아시아 근현대 문화의 심화 연구

교수의 「魯迅의文學現代化策略研究-以其筆下的‘鬼’形象爲例」(『중국어문학지』, 2021)는 2020년 2학기 대학원 수업의 성과물로, 참여대학원생 1명과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다. 본 논문은 루쉰 문학의 현대화 전략을 ‘귀’ 형상을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루쉰의 인식에서 ‘귀’는 인간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항상 인간과 함께한다. 본 논문은 그 다양한 면모를 루쉰의 개별 작품에서 찾아 그것이 갖는 민중적, 전통적 면모를 민중의 상상력에 대한 루쉰의 수용과 이의 문학적, 현대적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중국사회의 현대화에 대한 루쉰의 고민과 함께 그것의 수행을 위한 전략으로 전통적, 민중적 상상력의 원용이라는 관점에서 본 논문은 문학을 통한 고금(古今)의 소통, 즉 과거와 현대에 대한 트랜스적 조망의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중국어문학회 ‘2021년 우수 논문’에 선정되었다.

교수의 「山田詠美論—「ベッドタイムアイズ」以前の女性像の特徴と変遷を中心に」(『일본학보』, 2021)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과의 로맨스를 주제로 한 후타바(双葉)의 만화에 주목하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 표상의 특징과 변천을 분석한 논문이다. 야마다 에이미(山田詠美)는 소설가가 되기 전 야마다 후타바(山田双葉)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만화가로서 활동하였다. 그중에는 소설 데뷔작인 『베드 타임 아이즈(ベッドタイムアイズ)』처럼 일본 여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로맨스를 주제로 한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 야마다 에이미가

소설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때 만화가로서의 경험과 착상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아마다 후타바의 만화 작품에서 ‘소녀’와 ‘가루’라는 상반된 두 종류의 여성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베드 타임 아이즈』에서는 보다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 전공 지식의 대중 확산

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문화: 45인의 덕후가 바라본 일본 이야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는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펴낸 일본문화에 관련한 저서이다. 학계의 결과를 교육 현장과 사회에 환원하여 더 나은 한일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저서는 일본어와 일본문학, 일본의 역사,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공부하고 체험해 온 45인의 집필진이 다채로운 사진과 함께 일본문화를 담았다. 본 저서는 일본 『도쿄신문(東京新聞)』(2021년 6월 2일자)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일본미디어-『주니치신문(中日新聞)』(2021년 6월 2일자), 한국-『교수신문』(2021년 5월 23일자), 『디지털타임스』(2021년 5월 23일자), 프랑스 시사월간지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2021년 5월 31일자) 등에 소개되어 현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LAB을 통한 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성과 창출

교수는 본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인 연구원, 참여대학원생 2명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그 성과물로 『동아시아 재난서사』(보고사, 2020)를 간행하였다. 본 저서는 20세기 한일 양국의 재난문학, 20세기와 21세기 경계에 선 동아시아 재난문학을 분석한 연구서로,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사업(2016-2019)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성과를 담은 결과물이다. COVID-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이자 성과로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교수는 중일어문학과 중일지역 비교문화전공의 석박사과정생이 공동연구를 통해 『조약으로 본 일본근대사 I: 청일전쟁으로 가는 길』(트리펍, 2020)을 간행하였다. 본 저서는 19세기 일본의 개항부터 청일전쟁까지의 시기의 많은 조약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세한 번역으로 연구의 기초를 다졌으며, 각 조약 및 협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문을 첨부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참여교수 연구역량

①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 최근 1년간(2020.09.01~2021.0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 (천원)		
	3년간(2017.01.0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0.09.01~2021.0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997,851	879,012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97,745	71,32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23,270	55,902	
참여교수 수	17	17	

②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가.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및 추진 실적

ㄱ. 현행 체계와 지원에 따른 성과

- 국제 저명학술지 개발 및 투고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 발 동아시아학’의 학술 지위 향상 및 관련 지식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동아시아적 특성에 맞는 인문학 중심의 국제학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비전에 맞추어 국제학술지를 개발하였다. 동아시아 학술연구에 특화된 국제학술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는 현재 2021년 6월 12호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고 있으며, Scopus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저명학술지 개발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저명학술지 투고를 적극 권장해왔다. 그 결과 [] 교수가 Scopus 학술지인 『Contemporary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trategic Rel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에 논문 「Facing China Differently and Equally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ese Policy Behaviors-」(2020)를 게재하여 적극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였다.

- 인센티브제 등 경쟁시스템 도입 및 성과

본 교육연구단은 ‘글로벌 심화 전략’에 따른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지급을 내규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인센티브 기준을 ‘논문 실적(국내학술등재지, 해외저명학술지 구분)’, ‘저서 실적(단독 저서, 공동 저서 구분)’, ‘학술대회

발표 실적(국내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구분)', '학술대회 사회 및 토론', '수상 내역', '특강 및 강연회', '학회 및 연구소 활동', '담당 수업' 등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0년도에는 8명(■■■■, ■■■■, ■■■■, ■■■■, ■■■■, ■■■■, ■■■■, ■■■■)의 참여교수에게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 향후에도 연구 및 교육에 매진하는 참여교수를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한 학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ㄴ. 연구 목표 달성 전략에 따른 성과

- 다양한 국제 교류 장려책을 통한 연구역량 제고

2019년부터 창궐한 COVID-19로 학술계는 국제교류의 장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비대면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적극적으로 참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3단계 BK21Plus사업부터 기획해 온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은 본 교육연구단 주관으로 2020년 10월 16일과 17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를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10월 16일과 17일 인도네시아 Universitas Udayan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타이완 정치대학 주관, 본 교육연구단 주최로 2020년 11월 21일 개최된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포럼>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이 발표하였다. 2021년 12월 4일에는 일본 쓰쿠바대학과 공동 주최로 본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고, 2020년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국제학술대회는 COVID-19의 영향으로 1년 연기되어 본 교육연구단 공동 주최로 2021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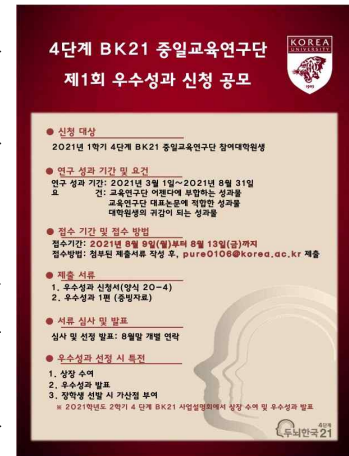
본 교육연구단은 최근 1년간 COVID-19 상황 속에서도 국제 교류 장려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 총 18회의 비대면 강연회를 개최하여 동아시아학의 연구 동향과 학술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강연회에 참가한 참여대학원생은 비록 대면 교류는 아니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국제적 감각을 체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 학술대회와 해외 석학 강연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국제적 전문가 간 연대로 발전시키고 있다. 연대의 대상을 기존의 중국과 일본을 넘어 아세안 등지로 확대하여 트랜스 개념에 입각한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연구 어젠다를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 LAB간 경쟁시스템과 자율적 운영 기능 확대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최우수 성과를 내는 LAB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LAB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대면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현대문학 LAB 세미나>, <중국현대문학LAB 세미나> 등은 비대면으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LAB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해왔으며, 구성원들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도록 학술지 투고 지원, 최우수 성과를 내는 LAB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교내외 유사 LAB간 트랜스 지원 연구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유사 LAB간의 공동 어젠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우수성과 신청 공모>를 마련하였다. 2021년 8월에 첫 실시한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제1회 우수성과 신청 공모>에서는 5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참여대학원생에게는 다음 학기 참여대학원생 선정과 인센티브 선정 시 가산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2021년 9월 7일 <2021학년도 2학기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사업설명회>에서 ‘우수연구상’ 시상식과 <우수성과 발표회>를 진행하여 중어중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와의 결합으로 탄생한 중일어문학과와의 학술 교류와 공동 어젠다 개발을 독려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 간 교류 증진과 트랜스 공동연구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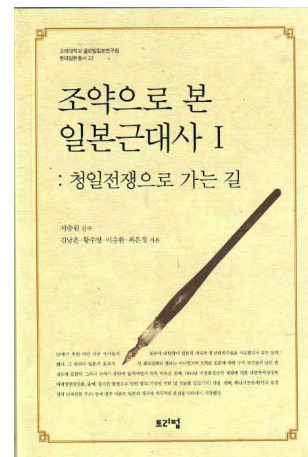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제1회 우수성과 신청 공모 포스터

-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LAB 운영 및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 창출 실적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그 연구 수행의 성과물이 논문 및 학술서의 형태로 발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1년간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저술한 학술 저서 2권이 출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 교수, 신진연구인력 [] 연구원, 참여대학원생 [], []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재난서사』(보고사, 2020)를 간행하였다. 또한 [] 교수가 감수하여 참여대학원생 [], [] 『조약으로 본 일본근대사 I: 청일전쟁으로 가는 길』(트리펍, 2020)을 공동 간행하였다. 이처럼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이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인 연구 시스템의 구축으로 트랜스 연구의 공동 어젠다를 개발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연구 성과를 논문과 학술서 등 다양한 방면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동아시아 재난서사』



『조약으로 본 일본근대사 I: 청일전쟁으로 가는 길』

나.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ㄱ. 참여교수 논문 실적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최근 1년간 논문 실적은 총 31건으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논문 실적 총 31건(2020.09.01-2021.08.31)

연번	저자	학술지명	논문명	출판 연월
1		한중인문학연구	从三个方面看意义的规约化	2020.09
2		중국학논총	문학과 정치의 기로-마오쩌둥(毛澤東)혁명의 현실적 승리와 루쉰(魯迅)혁명의 형이상학적 승리	2020.09
3		중국학논총	서울의 중국어 이름 首爾의 이름 짓기 원칙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의 창조	2020.09
4		Contemporary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trategic Rel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Facing China Differently and Equally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ese Policy Behaviors-	2020.09
5		現代中國語研究	论汉语中的单个事件标界词 “一E”	2020.10
6		일본언어문화	コロニアルな文化的想像力への抵抗と回帰-手塚治虫『ジャングル大帝』におけるアフリカ	2020.10
7		건지인문학	〈漢將王陵變〉入韻套語的敘事功能	2020.10
8		중국어문논총	郭璞의 晉代 漢語 陽聲韻 음운체계	2020.10
9		일본학보	日本語作文の協同推敲過程におけるコメントの役割	2020.11
10		철학사상문화	语言学在AI时代的核心研究对象是什么	2020.11
11		中國文學	杜牧 詩의 數詞 활용 연구	2020.11
12		중국어문논총	論對漢語時間副詞起制約作用的隱性語義範疇-以“從此”等八個現代漢語時間副詞為例	2020.12
13		일본언어문화	意見陳述の終結部における聞き手の言語行動-韓国語を母語とする日本語非母語話者の日本語熟達度による比較から-	2020.12
14		日本語文學	韓国人中級日本語学習者のEメールに見られる断りのストラテジー-日本語母語話者との比較を通して	2020.12
15		중국학논총	《弃而钗》의 敘事特色	2020.12
16		中國語文論叢	현대중국어의 ‘중결성’과 ‘중결성분’-어기조사와 보어 구문을 중심으로	2020.12
17		中國語文論叢	中國 ‘姑惡’ 詩研究-문화적 배경과 확장의 양상	2020.12
18		일본학보	山田詠美論-「ベッドタイムアイズ」以前の女性像の特徴と変遷を中心に	2021.02
19		일본연구	일본어 경어표현의 문법적 정합성에 관하여	2021.02
20		중국어문논총	조선 고종 <북묘묘정비(北廟廟庭碑)> 주석과 번역(1)	2021.02
21		일본연구	일제강점기 한반도 일본어 미디어의 ‘남양(南洋)’ 표상 『경성일보(京城日報)』의 동남아시아 기사를 중심으로	2021.02
22		中國文學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	2021.02
23		중국어문학지	魯迅의文學現代化策略研究-以其筆下的‘鬼’形象為例	2021.03

24		중국현대문학	문혁시기 중국의 북한영화 수용과 신세기 전후 중국 영화 속의 잔영	2021.04
25		한중인문학연구	论现代汉语助动词的词义	2021.05
26		일본학보	노(能) 작품 속의 달빛의 역할	2021.05
27		中國學論叢	어문계열대학원 PBL교과목설계와 운영방안-K대학중일 어문학과 '중국고전문학PBL' 수업을 중심으로	2021.06
28		중국학논총	韓國早期對中國新文學、台灣文學、自由中國文學的接受及認識—從日據到冷戰初期的翻譯和話語變化為中心	2021.06
29		中國文學	이백 시에서의 허실 교차 이미지 연구	2021.08
30		한중언어문화연구	육유 등림시의 공간기호론적 분석	2021.08
31		일본어교육연구	日本語會話授業における協働学習導入の可能性—質問・回答タスクの分析から—	2021.08

ㄴ. 참여교수의 저서 실적

본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저서 실적은 총 8건으로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저서 실적 총 8건(2020.09.01.-2021.8.31)

연번	저자	구분 (국내/해외)	서명	출판 정보		저자	
				출판사명	출판연월	단 독	공 저
1		국내	동아시아 재난서사	보고사	2020.12		○
2		국내	조선인 작가와 조선문단론	역락	2021.01	○	
3		국내	동아시아 지식의 교류 *본서는 일본에서 『東アジアにおける知の往還』(勉誠出版, 2021.03, 일본어)으로 동시 출판됨.	역락	2021.03		○
4		국내	일본인의 언어유희	글로세움	2021.03		○
5		국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 45인의 덕후가 바라본 일본 이야기	지식의 날개	2021.05		○
6		국내	문화로 보는 일본어	솔과학	2021.06		○
7		국내	중국어 형식 통사론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06		○
8		국내	정보화시대의 일본어·일본어교육연구	보고사	2021.07		○

위의 저서 외에도 教授의 역서 『남양 남방의 일반개념과 우리들의 각오』(보고사, 2021)는 1910년대와 1940년대 동남아시아 지역 인식, 일본-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계 설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教授의 역서 『남방 제지역용 일본문법교본 학습지도서』(보고사, 2021)는 1945년 남방지역의 일본어교육 및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역서는 동아시아 3국을 넘어 일본-아세안-인도를 아우르는 ‘트랜스-동아시아’ 권역 내에서 한국 발 동아시아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4단계 BK21사업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와 의의를 가진다.

3.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4단계 BK21사업에 임하여 본 교육연구단은 내부적 연구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공유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공동·개인별 활동을 통해 본 교육연구단은 연구 클러스터와 기타 학술 집단 또는 대중 공동체 사이의 학술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연구단의 연구 성과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기여 실적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연구 성과의 사회 이슈 연계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가. 연구 성과에서 산업·사회 이슈 해결로의 환류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각기 다양한 학술논문을 발표, 산업·사회문제를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왔다. 최근 1년간 연구 성과 중 대표적인 연구 논문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ㄱ. 산업·사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모색

본 교육연구단은 사회문제 해결 주제를 연구 방면과 연계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 교수는 논문 「어문계열 대학원 PBL 교과목 설계와 운영 방안 — K대학 중일어문학과 ‘중국고전문학PBL’ 수업을 중심으로」(『중국학논총』 Vol.72, 2021.06)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교수자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학습 방법인 PBL을 대학원 교과목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했다. 이 성과는 향후 대학원 PBL 과목 설계와 운영 지침으로 삼을 수 있어 의의가 크다.

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구 모델 개발과 산학협력 모색

본 교육연구단은 우수한 중국어·일본어 데이터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기업 혹은 정부 기관의 지원 요청에 부응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지역 도서관 등과 연계된 동아시아 관련 DB 구축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교수의 논문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에서는 ‘AI 시대’에 대응해 중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볼 다섯 가지 세부 분야, 전산비평,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번역, 정보시각화를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중국고전문학 교육·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ㄷ.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식의 창출

본 교육연구단은 우수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였다. ■■■■■ 교수의 논문 「서울의 중국어 이름 首爾의 이름 짓기 원칙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의 창조」(『중국학논총』 Vol.69, 2020.09)는 지역사회의 국제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 확산 시키는 데 있어 중국어문학이 기여한 중요한 성과이다.

나. 연구서적 저술을 통한 산업·사회문제 해결 접목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각기 다양한 학술저서를 발간, 산업·사회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왔다. 최근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이 발간한 주제별 저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ㄱ. 동아시아 교류와 연결

- [] 교수: 『동아시아 지식의 교류』(역락, 2021.03)

ㄴ. 동아시아의 역사와 갈등 해결

- [] 교수: 『남양 남방의 일반개념과 우리들의 각오(역서)』(보고사, 2021.04)

- [] 교수: 『남방 제지역용 일본문법교본 학습지도서(역서)』(보고사, 2021.04)

ㄷ. 동아시아 재난문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모색

- [] 교수: 『동아시아 재난서사』(보고사, 2020.12)

ㄹ. 동아시아 언어·문화 이해

- [] 교수: 『조선인 작가와 조선문단론』(역락, 2021.01)

- [] 교수: 『일본인의 언어유희』(글로세움, 2020.12), 『(알면 다르게 보이는)일본 문화: 45인의 덕후가 바라본 일본 이야기』(지식의 날개, 2021.05), 『정보화시대의 일본어·일본어교육 연구(공저)』(보고사, 2021.07)

- [] 교수: 『중국어 형식 통사론(역서)』(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06)

위와 같이 본 교육연구단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 수행 결과로 도출된 연구 성과물을 목적에 맞춰 재구성하여 사회 일반의 용도에 적용하고 일반 대중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펼칠 예정이다.

② 대내외 강연 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 해외 석학들의 동시대 동아시아 관련 문제의식 및 연구시야 공유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은 중일 양 언어 기반의 연구 플랫폼인 본 교육연구단 특화된 학술 서비스 행사이다. 본 교육연구단은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을 통하여 해외 저명 학자들과 동시대 동아시아 및 글로벌 제반 문제에 대한 관점을 교류하고, 실제 연구를 통해 산업·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다. 2020년 9월 이후 10명의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각 주제별 강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일본어문학 · 일본학 방면: 일본 아지아대학교 [] 교수(일본어학 · 교육, 2020.12.24)
- 중국어문학 · 문화 방면: 미국 U.C San Diego [] 교수(세계문학과 중국문학, 2021.01.13), 홍콩중문대학 [] 교수(글로벌 화인 언어문화, 2021.01.21), 홍콩중문대학 [] 교수(중국전통시학, 2021.01.28), 중국 復旦大學 [] 교수(중국문학, 2021.04.22), 미국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교수(중국성문학, 2021.05.06), 중국 清華大學 [] 교수(중국고전과 디지털인문학, 2021.06.24), 중국 山東大學 [] 연구원(중국 웹문화, 2021.08.05)
- 동아시아 및 글로벌 연구 방면: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 교수(인류세와 동아시아, 2020.11.26),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Sasin [] 교수(동남아시아 연결성, 2021.03.25)

나.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한 산업 · 사회문제 해결 모색

본 교육연구단은 국내외 석학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술 · 연구와 산업 · 사회의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 초청 강연은 산업 현황, 권역 간 교류, 문화 산업 트렌드, 사회 정의 등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본 교육연구단의 구성원들이 학술과 사회 간의 경계를 넘어 더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시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연구의 의미와 영향력 확산을 한층 심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2020년 9월 이후 5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동아시아 산업지형: [] (숙명여자대학교 중국중문학과 겸임교수), ‘세계를 향해 혁신하는 중국’ (2021.07.22)
- 동 · 서 연결성: [] (순천향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명청(明清)시기 역명전례논쟁의 담론지형과 동서문화 비교연구’ (2021.07.29), [] (유라시아 전문록 작가, 역사학 박사), ‘유라시아에서 동북아로, 다시 동아시아로’ (2021.07.29)
- 동아시아 문화 트렌드: [] (레드독컬처하우스 부사장 겸 COO), ‘동아시아 서브컬처 트렌드: 국경 없는 덕질의 세계’ (2021.08.05)
- 문학의 사회문제 해결: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문학과 정의: 동아시아 고전 문학 속의 법과 문학적 상상력’ (2021.08.19)

향후 기존과 같이 해외 석학 및 작가 초청강연회를 기획 · 개최하되, 최소 월 1회 이상 행사가 개최되도록 정규화함으로써 내외 참여자들에 대한 상시 교육 효과를 추구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어 강연에서 강연자와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순차 통역 등 소통 매개를 다양화하는 등 대중 확산을 위한 학과 내 통번역 인력체계를 정비할 것이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한 강의 주제를 확대하고, 초청 전문인사의 분야를 더욱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및 기후 ·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공 관련 해외 석학뿐 아니라, 세계적인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까지 초청 영역을 확대하여 청중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것이다.

4. 참여교수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본 교육연구단은 외국어문학을 기반으로 국제학술 활동을 특성화하고 있으며 ‘일국 중심적’ 연구를 지양해왔다. 4단계 BK21사업에서는 ‘트랜스-동아시아학’을 지향하면서 중국, 일본, 타이완 및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 등 서양의 연구자들과 활발한 국제학술교류를 심화함과 동시에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활동은 국제학술대회 조직 및 위원회 활동, 국제 초청강연, 국제학술지 활동, 국제학술대회 발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적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학술지 활동 실적

ㄱ. 국제학술대회 조직 및 위원회 활동 실적

- [] 교수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国文学研究資料館) 국제공동연구네트워크위원회(国際共同研究ネットワーク委員会) 위원(2017년-현재)

- [] 교수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한국 측 운영위원(2016년-현재)

- [] 교수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한국 대표(2013년-현재, 한·중·일·타이완 공동)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 Asia’ 조직위원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운영위원(2020.11, 한국 주최)

- [] 교수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운영위원장(2020.11, 한국 주최)

ㄴ. 국제 초청강연 실적

- [] 교수

〈第三屆韓國中文語法教學研討會〉(2021.06, 한국, 한양대학교공자학원)에서 기조강연「爲什麼要從三個平面看漢語語法？」

ㄷ. 국제학술지 활동 실적

- [redacted] 교수

『平安朝文学研究』 이사(2012년-현재)

- [redacted] 교수

『跨境・日本語文学研究』 편집위원(2014년-현재)

- [redacted] 교수

『文化研究國際學報』 해외고문(2012년-현재)

浙江大學人文學院海外華人文學與文化研究中心 임원(2016-현재)

- [redacted] 교수

『東アジアの思想と文化』 편집위원(2013년-현재)

『跨境・日本語文学研究』 편집위원장(2014년-현재)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thical Literary Criticism(IAELC)의 Second Committee’ 집행위원(executive)(2017년-현재)

- [redacted] 교수

‘雙語教育研究ヨーロッパ日本語教師会(ICJLE: Association of Japanese Language Teachers in Europe)’ 편집위원(2014년-현재)

- [redacted] 교수

『跨境/日本語文学研究』 사독위원(2017년-현재)

ㄹ. 국제학술대회(세미나·학술대회·학술 심포지엄 등) 발표 실적

최근 1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실적은 총 9건으로,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4> 최근 1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9건(2020.09-2021.08)

성명	개최국	발표제목	학술대회명	개최일시
[redacted]	비대면	[NIJL 2021 RESOURCES AND COOPERATION FOR THE NEXT DECADE] 韓国における日本古典文学の研究と教育	Virtual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21 Annual Conference	2021.03.25
	타이완	韓国・文在寅政府の新南方政策と日本・安倍内閣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FOIP) 構想の比較から得られるもの	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2020.11.21
	일본	韓国における日本研究の動向と展望：外国文学言及から自国文学・文化研究としての日本研究へ	大阪大学グローバル日本学教育研究拠点／「国際日本研究」コンソーシアム共催国際シンポジウム	2020.12.19

일본	冷戦初期以前の韓国における台湾文学認識	東京臺灣文學研究學會 (도쿄 대만문학연구회)	2021.07.17
한국	アジアにおける日本語文学・文化の越境と翻訳 —東アジアと東南アジアの対話—	アジアにおける日本語文学・文化の越境と 翻訳—東アジアと東南アジアの対話—	2020.10.16
타이완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日本研究の交流と 東南アジアとの共同研究の可能性	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2020.11.21
중국	〈金瓶梅〉韓文譯本初探——以歇後語翻譯為中心	第十六届(上海)國際《金瓶梅》學術研討 會(複旦大學中國語言文學系)	2020.10.31 - 2020.11.01
한국	作文の協同推敲過程におけるコメントの役割— 日本語学習者によるコメントの検討から—	한국일본학회 제101회 국제학술대회(한국일본학회)	2021.02.06
한국	論現代漢語助動詞的詞義	第22届Asian文化學會學術大會(Asian文化 學會 `東國大學東西思想研究所主辦)	2020.12

나. 대표 국제 저술 활동 실적

본 교육연구단의 교수들은 미국·중국·일본 및 타이완 등지에서 국제 저술 활동에 참여하여 학문적 교류를 주도하고 있다. 관련 저술 활동 실적으로 [redacted], [redacted], [redacted] 교수의 공저 『東アジアにおける知の往還』(勉誠出版, 2021.03)는 한일 양국 대표 연구자들이 수차례 공동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본 저서는 2021년 3월 한국 역락 출판사에서 한국어판 『동아시아 지식의 교류』으로 동시 출판되었다.

②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지난 3단계 BK21Plus사업을 수행하면서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정체결, 각종 국제학술대회 주최,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기존의 공동연구는 참여교수 개개인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측면이 강했다. 이에 4단계 BK21사업에서는 본 교육연구단의 주도로 제반 트랜스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확장형 국제교류 모델의 지속적인 창출

최근 1년간 본 교육연구단 교수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건수는 총 4건이며, 관련 실적은 3건이다. 또한 [redacted] 교수는 현재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redacted] 교수와 히로시마대학의 [redacted] 교수와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표 3-5〉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2020.09-2021.08)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일본/東京学芸大学	『문화로보는일본어(文化で見る日本語)』 (술과학, 2021.06)	979-11-8712-4 849 (1187124842)
2			이탈리아/베네치아카오스 카리대학, 타이완/단장대학, 일본/국립국어연구소, 일본대학, 쓰쿠바대학, 와세다대학, 시즈오카대학, 도쿄하대학	『정보화시대의 일본어·일본어교육연구』 (보고사, 2021.07)	979-11-6587-1 95-6
3			일본/일본국제교류기금, 도쿄한국문화원, TVSnext, 홋카이도대학, 아이치가쿠인대학, 일본방송대학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문화』(한국방송통신대 학교출판문화원, 2021.07)	978-89-20-040 36-8 03370

이후 기존의 국제 학술교류를 국제적 전문가 간 연대로 발전시키고, 연대의 대상을 기존의 중국·일본·타이완·호주·독일 등은 물론 아세안 등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트랜스 개념에 입각한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연구 어젠다를 발굴하고 그에 관련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 광역화된 연구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강화와 연구역량 확장

ㄱ.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해외 연구자와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네트워크 성과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한국·중국·일본·타이완·미국·유럽 등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자와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를 주최·주관하고 있다.

*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 포럼>: 2019.11(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개최), 중국 2020.11(타이완 타이완정치대학 개최) 2021.12(일본 쓰쿠바대학 개최 예정)

* <동아시아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2019.10(타이완 타이완정치대학 개최), 2020.10(비대면 학술대회로 개최), 2021.10(인도네시아 Universitas Udayana 개최 예정)

- 향후 국제학술대회의 성과를 논문, 저서, SNS, 각종 자료 등으로 완성·가공하여 국내 및 국제사회에 적극 발신·홍보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이 해외 저명

학자들과 국제학술지로 창간한 『跨境・日本語文學研究』[Border Crossings: The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Literature Studies]는 Scopus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ㄴ. 해외 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확장

- 2010년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대학원 문화연구과의 석사과정 복수학위 프로그램(DMDP) 협정을 비롯하여, 2015년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중국 상하이교통대학 인문학원 중문과, 2017년 중국 화중사범대학 국제문학윤리비평연구센터 등 총 4건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한 각국의 인적이동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학자 및 대학원생과 원격화상 학술회의 및 교류회 등을 적극 활성화·제도화하고 있다.

다. 세계적 석학의 개방적 초빙으로 동아시아학 허브 구축

- 최근 1년간 총 10회에 이르는 해외 석학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는 대학원생에게 동아시아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폭넓은 연구 시야,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체험하는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장되고 개방된 비대면 강연 방식을 통해 인류세, 세계문학, 동남아시아 연결성, 디지털인문학 등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부합하는 시리즈형 석학·전문가 초청강연을 기획 및 개최하여 학술교류의 질적·양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표 3-6〉 최근 1년간 해외석학 초청강연회-총 10건(2020.09-2021.08)

일시	강연자	소속	제목
2020.11.26		Arizona State University(미국)	East Asian Studies in the Anthropocene Age
2020.12.24		亜細亜大学(일본)	해외대학의 한국인 ‘일본어학·교육’ 석학 교수의 연구와 도전—「일본 소재 대학에서 외국인 교원의 경력형성과 연구(日本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キャリア形成と研究)」
2021.01.13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미국)	閭連科與世界文學視野中的中國現代文學
2021.01.21		香港中文大學(홍콩)	香港中文與全球華語詞匯的研究
2021.01.28		香港中文大學(홍콩)	詩言志與中國傳統詩學
2021.03.25		Chulalongkorn University Sasin(태국)	태국을 중심으로 본 동남아의 이해: 연결성을 중심으로
2021.04.22		復旦大學(중국)	貞元之風尚蕩-論貞元學潮與貞元文風之關係
2021.05.06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미국)	3韻律層級單位及其基礎
2021.06.24		清華大學(중국)	中國古典文化研究中的數字人文實踐
2021.08.05		山東大學(중국)	中國‘女性向’網絡文學與東亞‘女性向’文化

IV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교육연구단(팀)명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중일 교육연구단
교육연구단(팀)장명	■■■■■

연번	구분	언론사명 /수상기관 등	보도일자/ 수상일자 등	제목/ 수상명 등	관련 URL
		주요내용 (200자 이내)			
1	수상	news1외 2건	2020.12.28	올해의 학술부문 최 우수도서 선정 『국보 겐지모노가 타리에마키』	https://www.news1.kr/articles/?4162850
		‘2020 올해의 우수도서’ 학술부문 최우수도서에 ■■■■ 교수의 『국보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源氏物語絵巻)』-일본고전문학을 그림으로 읽다』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가 선정됨			
2	성과	국민일보 외 2건	2021.02.09	한국일본학회 ■■■■ ■■■■ 교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725&code=11131100&cp=nv
		2021년 2월 6일 온라인회의로 개최된 한국일본학회 제101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 교수가 제25대 회장으로 선임됨			
3	기타	한국대학신문 외 3건	2021.02.02	고려대 문과대, 인문 고전 교육방식 새로 운 실험 나서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4015
		고려대 문과대학에서는 최근 비대면 방식의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인문고전 교육프로그램 ‘고성방가(高省芳歌)-깊은 성찰, 아름다운 울림’ 제작. 이 프로그램에 ■■■■ 교수가 참여하여 <소설신수>(쓰보우치 소요 저) 편을 제작될 예정임			
4	수상	아주경제, 아시아투데이 외	2021.05.06	2021 ‘자랑스러운 고려대 문과대학인 상’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6081210240
		2021 ‘자랑스러운 고려대 문과대학인상’ 교육 학계 부문 ■■■■ 교수가 선정됨			
5	성과	한국교수신문 외 6 건	2021.05.31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문화	www.kyosu.net
		■■■■ 교수가 집필에 참여한 저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대한 서평			
6	성과	조선일보 외 13건	2021.07.27	문체부, 간행물윤리 위원회 위원 15명 위촉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2902&ref=A
		제4기 문화체육관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 ■■■■ 교수가 위촉됨			

1. 1차년도 국고지원금 집행 내역 (2020년 9월 1일 ~ 2021년 2월 28일)

(단위 : 원)

항 목 (비율)	세 부 내 역		비고 (집행 비율)
1차년도 국고지원금			
대학원생 211,800,000 (57.82%)	예산	■ 석사과정 지원대학원생 장학금 : 58,800,000 ■ 박사과정 지원대학원생 장학금 : 117,000,000 ■ 박사수료 지원대학원생 장학금 : 36,000,000 2020-2학기 : 석사 14명 + 박사 15명 + 박사수료 6명= 총 35명	
	집행액	석사 : 58,800,000 /박사 : 117,000,000 /박사수료 : 36,000,000	(100%)
	잔액	0	
신진연구인력 85,240,637 (23.27%)	예산	■ 박사후과정생 인건비(2명) : 42,600,000 ■ 계약교수 인건비(2명) : 42,640,637	
	집행액	급여 + 4대 법인부담금 + 인센티브 + 퇴직금 적립 = 83,265,120	
	잔액	1,975,517	(97.68%)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지원비 2,200,000 (0.60%)	예산	■ 논문게재료 : 2,200,000	
	집행액	13건 = 1,410,000	
	잔액	790,000	(64.09%)
국제협력경비 13,200,000 (3.60%)	예산	■ 해외석학초청 : 8,000,000 ■ 단기연수지원 : 5,200,000	
	집행액	온라인 해외석학초청 강연회 5회 = 3,760,000	(28.48%)
	잔액	9,440,000	
교육연구단 운영비 35,542,250 (9.70%)	예산	■ 여비(국내) = 3,000,000	

2. 2차년도 국고지원금 집행 내역 (2021년 3월 1일 ~ 2021년 8월 31일)

(단위 : 원)

항 목 (비율)	세 부 내 역		비고 (집행 비율)
2차년도 국고지원금			
대학원생 412,800,000 (56.35%)	예산	■ 석사과정 지원대학원생 장학금 : 67,200,000 ■ 박사과정 지원대학원생 장학금 : 249,600,000 ■ 박사수료 지원대학원생 장학금 : 96,000,000 2021-1학기 : 석사 11명 + 박사 14명 + 박사수료 8명= 총 33명	
	집행액	석사 : 46,200,000 박사 : 109,200,000 박사수료(6월 1명 취업으로 참여종료) : 45,666,667	(48.71%)
	잔액	211,733,333	
신진연구인력 168,000,000 (22.93%)	예산	■ 박사후과정생 인건비(2명) : 84,000,000 ■ 계약교수 인건비(2명) : 84,000,000	
	집행액	급여 + 4대 법인부담금 = 73,532,830	
	잔액	94,467,170	(43.7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지원비 7,000,000 (0.96%)	예산	■ 논문게재료 : 7,000,000	
	집행액	29건 = 2,808,000	
	잔액	4,192,000	(40.11%)
국제협력경비 35,000,000 (4.78%)	예산	■ 해외석학초청 : 23,000,000 ■ 단기연수지원 : 12,000,000	
	집행액	온라인 해외석학초청 강연회 5회 = 3,300,000	(9.43%)
	잔액	31,700,000	
교육연구단 운영비 73,084,500 (9.98%)	예산	■ 수용비 = 2,500,000 ■ 행정직원 인건비 : 32,800,000 ■ 학술활동지원비 : 4,300,000 ■ 회의비 및 행사개최비: 5,484,500 ■ 참여교수 인센티브 : 28,000,000	
	집행액	19,222,716	(26.30%)
	잔액	53,861,784	
간접비 36,625,500 (5%)	예산	■ 간접비 : 36,625,500	
	집행액	25,637,850	(70.00%)
	잔액	10,987,650	
합계	예산	732,510,000	(44.44%)
	집행액	325,568,063	
	잔액	406,941,937	

*2차년도 협약기간 중 2021학년도 1학기 6개월 집행내역임.